

2006 곡성문화원 복권기금지원사업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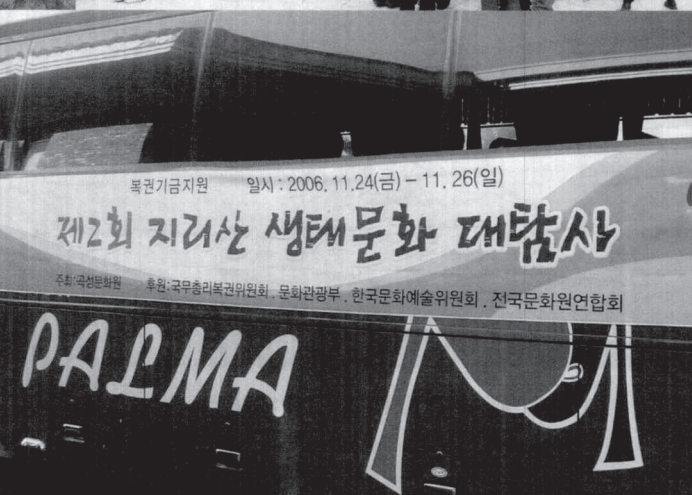
주최 곡성문화원

후원 국무총리복권위원회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원연합회

목 차

- 06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이형근(곡성 석곡초등학교 3학년)
- 07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험 보고서
배영숙(곡성 석곡초등학교 3학년 이형근 어머니)
- 09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김덕화(곡성 입면초등학교 5학년)
- 12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남숙희(곡성 입면초등학교 5학년 김덕화 어머니)
- 14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김정연(곡성 중앙초등학교 4학년 3반)
- 16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박금미(곡성 중앙초등학교 4학년 김정연 어머니)
- 17 지리산 주변을 돌아보며...
박은미(곡성 문화원 2모듬장)
- 20 제2회 지리산생태문화 탐사를 다녀와서
최슬애(곡성 중앙초등학교 4학년2반)
- 21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이승현(곡성 중앙초등학교 4학년)
- 22 생태문화대탐사에 여운을 남기며...
진경주(곡성 중앙초등학교 이승현, 윤종 어머니)
- 24 제2회 지리산생태문화 탐사를 다녀와서
조현주(곡성 석곡초등학교 4학년 유지연 어머니)
- 25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유지연(곡성 석곡초등학교 4학년 2반)
- 27 지리산아! 내가 간다.
이미선(곡성 입면초등학교 5학년 나사무엘 어머니)
- 29 지리산생태문화탐사를 다녀와서...
나사무엘(곡성 입면초등학교 5학년 2반)
- 30 지리산 생태 문화체험을 다녀와서...
김 립(곡성 중앙초등학교 4학년 2반)
- 31 지리산 생태 문화 대탐사
이순욱(곡성 중앙초등학교 4학년 김 립 어머니)
- 33 지리산 생태문화 탐사를 다녀와서...
김형인(곡성 입면초등학교 5학년)
- 34 지리산은 내 것이었다!
김소연(곡성 입면초등학교 4학년 1반)
- 35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안은비(곡성 석곡초등학교 3학년 2반)
- 36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조유숙(곡성 석곡초등학교 3학년 안은비 어머니)
- 38 지리산 대탐사
이지현(곡성 고달초등학교 5학년 1반)
- 40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이윤중(곡성 중앙초등학교 5학년)
- 41 지리산 답사를 다녀와서...
최향화(곡성 문화원 4모듬장)
- 43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김순희(곡성 고달초등학교 이지현, 윤호 어머니)
- 45 지리산아 안녕!
김소영(곡성 입면초등학교 5학년 1반)
- 46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 보고서
박병준(곡성 중앙초등학교 5학년 1반)
- 47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선현숙(곡성 중앙초등학교 5학년 박병준 어머니)
- 48 지리산의 체험을 다녀와서...
이서정(곡성 입면초등학교 4학년)
- 50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마치고
김영숙(곡성 입면초등학교 4학년 이서정 어머니)
- 52 지리산 생태체험을 다녀와서...
이규녀(곡성 삼기초등학교 5학년 정희광 어머니)
- 53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정숙희(곡성 문화원 5모듬장)
- 56 지리산 생태문화체험 2박3일을 다녀와서 ...
오승미(곡성 입면초등학교 김형은, 형인 어머니)
- 58 지리산 생태문화 탐험을 다녀와서...
김형은(곡성 입면초등학교 3학년)
- 59 지리산 생태문화 탐사를 하고
나찬웅(곡성 고달초등학교 4학년 1반)
- 61 지리산 대탐사를 다녀와서...
나형규(곡성 고달초등학교 4학년 나찬웅 아버지)
- 63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신수진(곡성 석곡초등학교 5학년 1반)
- 65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
이미정(곡성 석곡초등학교 5학년 신수진 어머니)
- 67 기행 소감문
김민희(곡성 중앙초등학교 4학년 3반)
- 68 기행 편지글
성경덕(곡성 중앙초등학교 4학년 김민희 어머니)
- 70 문화 현장을 탐방하고
이광숙(곡성 중앙초등학교 4학년 오다해 어머니)
- 71 <체험 기행문> 아빠와 함께 지리산을...
조화진(곡성 중앙초등학교 3학년 1반)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이형근(곡성 석곡초등학교 3학년)

나는 선생님의 추천으로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갔다. 나는 설레는 마음을 버스에 싣고 첫 목적지인 남계서원으로 갔다.

그곳을 구경하고 함양군의 관광지인 상림에 가서 낙엽을 밟아보고 다시 남원으로 가서 실상사에 들렀다. 실상사가 다른 절과 다른 점은 산이 아닌 그냥 평지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물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는 허브마을에 가서 허브비누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화엄사에 들러 숙소로 들어갔다. 정말 피곤한 하루였다.

다음날 우리는 청학동으로 갔다. 청학동에서 삼성궁과 도인촌 마을을 구경하고 점심을 먹고 예절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문화 체험도 했다. 인절미 만들기, 널뛰기, 그리고 투호놀이 국궁활 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국궁 활 쏘기가 제일 재미있었다. 비록 하나밖에 못 맞추었지만 그래도 재미있었다. 한 번 더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웠다. 마지막 날은 죽곡 하늘 나리마을에 가서 밀납초도 만들고 할머니들께서 해주신 맛있는 점심도 먹었다.

돌아오는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틈틈이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퀴즈를 내어 맞히는 사람은 선물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만 울고 말았다. 내년에도 또 가고 싶다. 그땐 공부 많이 해서 선물을 꼭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3일을 단 둘이 보낼수 있어서 너무 기뻐다. 그리고 많은 곳을 보고 배우고 쓸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 다음에 또 갈 수 있으면 우리 문화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겠다. 너무 재미있고 행복한 체험이 되었다.



지리산 생태 문화 대탐험 보고서

배영숙(곡성 석곡초등학교 3학년 1반 이형근 어머니)

힘든 가을 걷이을 끝내고 한창 월동 준비에 신경 쓰고 있을 때 학교에서 이번 탐사를 다녀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좀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좋은 기회가 내게 찾아 온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동생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던 우리 큰 아들에게 자기의 생각이 잘못 났음을 확인 시켜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기대도 되고 한편으론 잔뜩 들뜬 마음으로 이번 체험의 길에 나섰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는 달리 너무 빠박한 스케줄로 인해 첫날부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체험을 해야만 했다. 지리산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시 시, 군에있는 역사의 현장을 둘러보았다. 틈틈이 내가 살고 있는 곡성 문화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옛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고 여러 가지 문화 체험을 직접 할 수 있었다.

은은한 향을 맡으며 허브 비누도 만들어 보고, 그 향을 음미하며 한잔의 차도 마셨다. 사실 맛은 별로지만...

첫날의 마지막을 구례 화엄사로 장식하고는 우리는 그렇게 모자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지고는 아들과의 둘만의 밤을 보내었다.

둘쨋날, 청학동으로 가는 길에 내 가슴은 하늘의 구름마냥 부풀어 있었다. 그곳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다. 꼬불꼬불 산길을 얼마나 돌았을까? 드디어 청학동에 도착했다. 하지만 나의 기대는 와들르 무너져 버렸다. 내가 생각했던 그곳은 옛 모습 그대로를 바렸다. 그런데 문명의 손길이 너무 많이 탄 걸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지금은 실망을 했지만 그게 어찌면 너무 단순히 생각한 나의 불찰이었을지 모른다.

그래도 그곳의 생활은 즐거웠다. 그 중에서도 널뛰기가 제일 재미있었다.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나고 학창 시절 때 그런 놀이라면 자신 있었는데 이젠 정말 나이는 못 속인다는 생각도 들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았다. 조금 뛰고 나니 숨이 차서 말조차 하기 힘들었다. 이번 탐험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청학동 훈장님께 강의를 듣고 있는 동안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던 내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다.

아들과 나의 뜻 깊은 시간을 각오하고 가진 했지만 어쩐지 아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집에서는 보여주지 못했던 사랑을 듬뿍 주고 왔다. 비록 역사에 대한 설명은 듣고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내겐 값진 시간이 된 것 같다. 돌아오는 길에 선물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눈물을 보이며 내년엔 한번 더 오자고 보채는 아들의 마음도 예뻐 보였다. 어쩌면 역사 공부 는 빵점 일지 모르지만 아들과 나의 사랑을 주고 받기는 서로 백퍼센트 만족한 것 같다. 정말 값지고 보 략된 시간이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나에게 커다란 행운이었다. 3일간의 여정이 두고두고 내 기억 속에서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곡성 문화원에 감 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김덕화(곡성 입면초등학교 5학년)

11월 24일 아침 내 마음속에 방아가 있는지 '쿵덕 쿵덕' 방아를 짚는다.

그 마음 다잡고 군민회관에 갔다.

그곳에서 소개를 하고 버스를 탔다.

버스를 타니 더 '쿵덕쿵덕' 거렸다.

★간곳1. 맨 먼저 '남계서원'에 갔다.

이런곳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처음 가본곳이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게 신기했다. 그리고 처음가서 그런지 말만하면 다 받아적었다. 그중 정리하자면

-경상남도 유형문화 제 91호이다. -경상남도 향양군 수동면 원평리에 있다. 라고 할수있다.

여길 보았을때 서원이란 그 자체를 몰랐는데 처음들어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어 좋았다.

★간곳2. 상림으로 갔다.

이곳은 인공숲이라고 할수있다. 만들어진지 오래되었지만 깨끗하고 식물도 많고 그래서 좋았다. 그리고 설명해주셨는데 정리해보았다.

-상림은 방수림이 된다. 홍수가 나면 상림 도로 옆 하천을 통해 물이 빠져나간다. 또 상림은 방풍림이 되기도 한다.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라고 할수있다.

이곳에서 많은 식물 그리고 이런곳에 오랜만에 와서 좋았다.

★간곳3. 실상사에 갔다.

이곳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해우소란 것이다. 그래서 해우소가 멀까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탑이 있었다..

설명을 해주었다. 그걸 간략히 하면

-탑은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나누어져있다. -우리나라는 탑을 홀수층으로 만든다. 이걸 새로 알았다...

그걸 알고 또 다른곳을 둘러보고 내가 궁금해하던 해우소란 곳에 갔다.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해우소가 화장실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기해서 들어가 보았다. 특이했다. 어떻게 머라 설명할수가 없었다. 해우소에서 나왔다. 어리둥절했다. 그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어서 어느정도 이해가 됐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 왜 화장실을 해우소라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간곳4. 허브마을

가기전 허브마을이라기에 허브에 대한 모든것을 알아가겠다. 라고 그런 다짐을 하고 갔다.

가자마자 그곳에서 캐모마일이라는 차를 주셨다. 냄새가 좀 이상해서 먹어봤더니 냄새하고 맛이 똑같았다. 그래서 못마셨다.

비누를 만들었다. 엄마는 티트리향비누 나는 라벤더향 비누

만드는 방법은

1.컵에 뜨거운 물을 담는다 2.색소를 물에 3~4방울 넣고 한 방향으로 섞일때 까지 젓는다 3.다 섞이면 허브향 오일을 3~4방울 넣는다. 조금 젓는다 4.비누틀에 붓는다 5.굳힌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간단하고 재미있어서 집에서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처음 만들었는데 이쁘고 잘 나와서 좋았다.

★간곳5.화엄사

화엄사는 일주문에서 금강문에서 천왕문을 거쳐 들어가는데..

이 문을 거칠때마다..양쪽에 세워져있는 사천왕이 너무 무서웠다..그리고 내가 웬지 죄를 지은것같았다...

화엄사에서는 추워서 잘 조사를 못해서 아쉽다.다음에는 조사를 열심히 해야겠다..

11월25일토요일아침 일어나서 청학동으로 출발했다..

★간곳6.삼성궁에 갔다.

그곳에서는 배달민족이란 것에 대한 것에 대해 배웠다..배달민족이란 처음 들어보는 것이다..그래서 잘 들어보았다..배달민족이란 우리 민족을 배달민족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도 배달민족이란 것을 알았다... 설명을 듣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서 삼족오도 보았다..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태극모양 호수인가 그제 제일 마음에 들었다. 또 그곳 안에는 무역관이란게 있었다..그곳은 대통령 경호원을 키우는 곳이라고 했다..신기했다..

★간곳7.도인촌에갔다.

처음에 도인촌이라길래 궁금했다.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일까 하고 말이다. 그런데 그곳은 옛 청학동이였다. 다소 실망은 했지만 훈장의 아내인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할머니를 보니 실망한것은 싹 가셨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제일 처음으로 그곳에서 살아 점점 사람들이 모여 한 마을이 되었기 때문..그래서 조금 뿌듯했다..

★간곳8.청학동 청소년 수련원으로 갔다.

그곳이 청학동이다..먼저 방배정을 하고 예절 반절,큰절을 배웠다. 내가 인사를 잘 못하는 편인데 이번에 자세히 배워서 좋았다. 예절에 대해 배우고 밖에서 널뛰기.투호,인절미 만들기.양궁을 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단체사진,모듬끼리도 찍고 사진찍은 곳 바로뒤 강당에서 장기자랑 30분간 했다. 모듬별로 하나 이상씩 해야하는데 우리모듬은 올챙이송으로 울동이랑 노래를 불렀다. 나는 노래는 조금 아는데 울동을 몰라서 많이 헛갈렸다. 그래도 하는데 까지 하고 다른 모듬 하는거 보고 저녁을 먹고 강당에 다시 모여서

고전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도인체조를 배우고 그토록 기다리던 지금까지 여러가지 했던 소감등등 그런 것을 다 발표했다. 나는 다 써서 읽었다. 그런데 내가 마이크를 가까이 대지 않아서 인지 내 목이 다 아플 정도로 크게 했는데 잘 안들렸다고 한다. 앞으로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야겠다.

11월 26일 일요일

★간곳9.죽곡 하늘나리 상한마을로 갔다.

오늘은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그런데 집으로 가기전 죽곡에 하늘나리 상한마을 그 마을에 들렸다. 그곳에서 밀납초를 만들었다. 나는 만들기 전 밀납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이곳에서 처음알았다. 그리고 초란것도 태어나서 처음 만들었는데 쉽고 재미있었다. 앞으로 꿀찌끼가 생기면 밀납초란것을 만들어 보아야겠다...하늘나리 상한마을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곡성 군민회관으로 왔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이번 체험은 힘들기도 했지만 재미있었다. 만약 내년에도 이런 체험이 있다면 오고싶다. 만약 다음달에 있다해도 오고싶을 만큼 재미있었다..그리고 내가 이 체험을 할수있게 해준 곡성문화원에 감사드리고, 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남숙희(곡성 입면초등학교 5학년 김덕화 어머니)

참 긴장되고 압담하다. 이런 체험은 나에겐 처음이라 글로 느낌을 쓸려니

전날 밤부터 무슨 내용인줄도 모르면서 약간은 설레었다. 막상 버스에 올라 설명을 들으면서도 뭐가 먼지 도통 아는게 없어 막막하기만 했다.

이 나이에 딸아이와 함께 유원지 여행이 아닌 체험학습을 간다는거 생각지도 못해왔다.

너무 바쁘게 여리곳을 다닌것 같다. 그럼에도 머리속에 남는게 있어 참 잘했다는 생각이 가족끼리 여행을 다녀도 이런곳은 가볼 생각도 안해봤다. 누구든 생활하면서 편하건만 쫓아가다보니. 이런 오지 산골은 엄두도 못냈을것이다. 나 역시 그랬으니까. 근데 너무 좋았다. TV에서만 본 그곳을 나에 눈과 귀가 느끼는 순간 너무 신선했다.

함양의 남계서원과 상림을 봤는데 딸아이한테 미안했다. 아는게 있어야 무어라 할말이 없어 엄마도 몰라서 이제 배우려고 국장님 설명을 잘 들어 보라고 근데 갈수록 머리속은 까맣게도 아무생각이 나질 않는다. 다른 장소로 옮겨갈때 마다 내가 아는건 하나도 없었다.

아무 정보도 없이 온걸 후회했다. 조금이라도 알려고 했으면 작은 상식이라도

지리산 청학동에 도착해서 삼성궁을 본 순간 내눈을 의심할수밖에 너무 웅장하고 거대한 돌탑하며 하나하나 이걸 어떻게 했을까 불가사의란 말이 절로 나왔다. 여기가 우리나라가 맞아 이런곳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안타까웠다. 모두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올텐데..

청학동 서당에서 우리 아이 하는 말이 엄마 왜 이런 산골에서 왜 살아 시내로 가서 살면 편한데 문화시설도 하나없고 불편한건만 말을 했다. 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받아들일지 생각을 해봤는데 얼른 생각나는게 없어 엄마도 여기가 좋은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 안 할껄 공기 좋고 물도 맑고 사람들이 순수하잖아. 가족같이 서로 문열어 놓고 지내잖아. 그게 왜 그럴까 가장 큰건. 믿음이겠지 서로 예의를 갖추고 대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겠지

그날 밤 여럿이 같이 자는게 처음이라 조금은 불편했다. 하지만 아침 일찍 산책하고 훈사님과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조금이나마 느낄수 있었다. 좋은 말씀해주셨다.

어느 누구를 만났든 먼저 내 마음을 비우고 듣는 자세를 갖추라고 하셨다. 쉬운게 아닌데...

아침을 먹고 청학동을 뒤로하고 오는데 웬지 가슴한켠이 서운하고 아쉬움이 남았다. 나이 탓일까. 이곳이 너무 편안해 보이기 까지 하니 잊을수 없는 체험을 했나보다.

다음 목적지 죽곡으로 갔을때 생각밖이었다. 조금이라도 청학동보단 문화혜택을 받고 사는 동네로 생각



했는데 이곳 역시 오지였다. 우리고장에 이런곳이 있다니 모르는게 너무 많다.

시골 인심을 그대로 느낄수가 있었다.

풍성한 점심상과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푸근했었다.

갑자기 친정어머니 생각이 났다. 우리 엄마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밀납초를 보면서 이곳을 많이 생각하겠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문화원과 주최측에 나에게 이런 기회가 와서 많이 느끼고 모르는 걸 깨우칠 기회를 줘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짧았지만 실속있는 긴 여행이었다. 다음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아이와 다시한번 와보고 싶다.

문화원 국장님 몸이 많이 피곤하셔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에 다녀와서

김정연(곡성 중앙초등학교 4학년 3반)

부품 기대감을 안고 군민회관으로 갔다. 모두가 다 정해진 후 버스를 타고 함양군 수동면에 있는 남계서원으로 갔다.

안내 선생님께서는 서원, 향교, 사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 주셨다. 남계서원은 선비들이 학문을 닦았던 곳임으로 선비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다음은 상림이라는 곳을 갔다. 상림은 하천이 3군데가 만나다고 안내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 그런데 상림에서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 아쉬운 점은 11월 달 이어서 상림에 있는 여러가지 핀 연꽃을 보지 못한 점이다. 그 다음으로는 실상사에 갔다. 실상사는 역사는 약 1300여년 전 통일 신라말에 지어 졌다고 한다. 실상사는 많은 유적과 문화재를 가지고 있었다.

또 제일 깊이 생각나는 것은 지금은 화장실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뒷간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배설을 하고 나서 톱밥을 덮어 냄새를 나지않게 하고, 또 그것이 비료가 되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곡식과 채소를 키우면 그게 바로 친환경 유기농법이다.

나는 제일 기대하던 춘향 허브하우스로 갔다. 허브 하우스에서 는 천연 허브로 비누를 만들고 또 캐로마 일허브차는 맛이 없었지만 그래도 건강에 좋다가에 다 마셨다. 그리고 숙소가 있는 구례 화엄사에 가서 20분만에 짧은 시간동안에 우리 불교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청학동 안에 있는 삼성궁, 도인촌을 둘러보고 청학동 서당에 가서 예절 공부를 배웠다. 나는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훈장 선생님의 말씀에 나는 엄마께 공수 인사를 하였다. 나는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와 떡을 만들어 보았다. 떡은 설탕을 넣지 않아 건강에는 좋았지만 맛은 그저 그랬다.

그리고 전통놀이중에서는 활쏘기가 제일 기억에 남았다. 활쏘기의 줄은 고무줄처럼 잘 늘어날줄 았았는데... 잘늘어나지 않아서 힘이들었다. 활쏘기가 끝나고 사진을 “찰칵!”하고 찍고, 장기자랑을 하였다. 장기자랑을 하고 나서는 훈장선생님의 말씀을 1시간 30분 동안 들었는데.. 허리와 다리가 아팠다.

말씀이 끝나고 간단한 체조를 하였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3분 스피츠를 하였다. 그런데 내가 첫 번째로 하게 되어서 가슴이 더 두근두근 하였고, 3분 스피츠를 시작 하였다. 3분 정도 하였나? 어찌되었든 11시 30분에 끝이 나서 너무 힘이 들었다. 다음날 하늘 나리 도네를 가보니 밀납초 만들기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밀납초를 다 만들고 나서.. 모듬초종점수와 어제 3분 스피츠 점수 경과를 발표 하였다. 그런데 3분 스피츠에서 우수상은 고달초 5학년 이지현 언니가 받고, 또 중앙초 5학년 박병주 오빠가 받았다. 더 기대 되는 최우수상은 입면초 5학년 김소영 언니가 받았다.

나는 내가 받을줄알았는데.. 언니, 오빠들이 받아서 조금은 속상하였다.

그래도 축하 박수를 쳐 주었다. 그리고 모듬 최종 점수를 발표 하였다. 나는 1모듬이었는데.. 우리 1모듬은 감점을 너무 많이 받아서... 4모듬이 1등을 하였다.

나는 상도 선물도 못 받았지만.. 엄마와 함께 2박 3일 동안 우리나라의 역사와 곡성 문화재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무화재를 보고 느끼며 체험과 함께 더불어 아주 큰 역사 공부를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을 곡성 문화원, 선생님, 엄마, 아빠께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지리산 생태문화답사

박금미(곡성 중앙초등학교 4학년 김정연 어머니)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한 해의 40여일을 남겨둔 11월 끝자락에 주부들이 2박 3일 동안 집을 비우기란 힘들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 진행 되는 지도 모르고 집에 남은 가족들도 염려되고 하여 마음을 결정 못하고 고민 하던중.. 다른 학부모 로부터 유익하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과 아들(민재)에게는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 딸과의 단불이 여행은 처음이다 보니 설레이기도하고 기대가 부풀아 울르며 출발 하였다.

남계서원, 상림, 사찰들을 둘러 보고 우리 문화재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상들의 생활의 모습과 지혜를 알수 있었다. 저심은 채소 뷔페에서 맛있게 먹고 춘향 허브하우스에서는 엄마와 딸이 아닌 친구처럼 허브재료로 비누를 만들면서 누가 더 예쁜가? 하며 보며서 서로 자기것이 더 예쁘다며서 둘만의 시간이 만들어진다(대화시간)

서로 못 해본 이야기도 해 보고 이렇게 첫날이 훌쩍 가버렸다.

지리산 청학동은 산이라 추울거라고 생각하였는데.. 생각외로 아주 따뜻하였다. 전통 놀이와 체험하기에는 딱 좋은 시설 이였다. 청학동은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보내고 싶어 던 곳이었다. 예절교육과 고전강의를 통해 많을걸 깨달았다 그중에서는 “우리는 부모에게 나을 낳아준 것만으로도 효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가슴까지 와 닿았다.

지리산 생태 문화 대답사를 다녀와서 힘들고 피곤하기는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마음과 유익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그리고 아울러 우리들을 인솔하여 고생하신 곡성 문화원 사무국장님, 관장님 조장님 그리고 교육을 받으시며 고생하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정연아! 사랑해~ 화이팅!!



지리산 주변을 돌아보며.....

박은미(곡성문화원 2모듬장)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된 탐사길...출발부터 지각이다...모듬장이라 7시50분까지 모이라고 했는데 8시가 넘어버린 것이다. 약속장소인 군민회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사람들이 집결한 후였다. 따가운 눈썹을 맞아가며 인파속으로 들어가 모듬별 인원체크를 한 후 버스 2대에 나누어 타고 예정보다 늦은 출발을 했다. 우리 탐사단이 첫 번째 도착한 곳은 경남 함양에 있는 남계서원이다. 곡성에도 서원이 많이 있지만 이곳은 좀더 특별한 곳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소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서원으로 정여창 선생님을 배양한 곳이다. 그리고 남계서원 입구에는 홍살문이 있는데 이 홍살문은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늦은 출발로 인해 서둘러 두 번째 코스로 이동을 했다. 우리 탐사단이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상림"이다. 상림은 방수, 방풍을 목적으로 만든 인공림으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곳이었다. 상림 입구에는 '상림유레비'와 '척화비'가 있었으며 여러 가지 나무들과 연못에는 전 세계에 서식하는 연꽃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계절이 겨울인 관계로 연꽃은 볼 수가 없었다. 너무 아쉬웠다. 연꽃 필 때 우리아가들과 꼭 와보고 싶었다. 세 번째로 우리탐사단의 발이 머문

곳은 남원의 실상사다.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참으로 가본 곳이였다. 보통 마을입구에는 나무로 된 장승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데 이곳은 특이하게도 돌로 된 석장승이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안내하시는 남원사무국장님을 따라 실상사 안으로 들어가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실상사에는 실상사 삼층석탑을 비롯해 많은 보물과 문화재가 있었다. 그중 인상 깊었던 것은 '실상사 철제여래좌상' 이었다. 전체적으로 철로 만들어진 반면 양손만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훼손되었던 것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 조상들의 실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 마지막으로 곡성문화원 사무국장님께서 모든 탐사단에게 해우소를 가보라고 했다. 우리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곳이었다. 우리의 배설물을 모아 밭에 거름으로 사용해 우리가 먹을 채소와 곡식들을 길렀다고 하니 아이들이 서둘러 해우소를 찾았다. 해우소를 다녀온 아이들의 반응이 재미있었다. 신기해하는 아이들 반면 괴로워하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이런 재래식 화장실이 생소할 것이다. 실상사 해우소를 뒤로 하고 늦은 점식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이동했다. 배가 많이 고팠었는데 막상 먹고 나니 속이 좋지 않았다. 식사를 맛있게 하고 서둘러 다음코스로 이동을 했다. 우리탐사단이 네 번째로 간곳은 남원에 있는 허브마을이다. 허브마을이라고 해서 많은 허브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계절관계상 허브나무들은 볼 수 없었다. 따뜻한 하모하일이라는 허브차로 몸을 녹이고 본격적으로 허브비누제작에 들어갔다. 내손으로 직접 만들어 본 비누는 이번이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됐다. 비누 틀에 비누 액을 붓고 굳히는 동안 아이들의 발표시간을 가졌다. 모둠별로 한명씩 뽑아 발표기회를 주기로 했는데 우리모둠에서는 서로 안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순간 걱정이 앞섰지만 우리 모듬의 귀염둥이 지연이가 해보겠다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비누가 다 굳어서 본인들에게 나누어졌다. 만들어진 비누를 들고 숙소가 있는 구례로 향하였다. 숙소로 가기 전 구례화엄사를 둘러보았다. 그냥 볼 때는 몰랐으나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이해가 빨리 됐다. 참 아는 게 많은 분이다. 드디어 우리가 하룻밤을 묵을 숙소에 도착했다. 방배정을 하고 저녁식사를 한 후 우리들의 자유시간이 되었다. 이제야 집에 두고 온 아이들이 생각났다. 처음으로 떨어져 보는 거라 아이들이 많이 울 텐데... 걱정이 앞섰다. 걱정도 잠시...눈떠보니 아침이다. 서둘러 청학동으로 떠날 채비를 했다. 청학동으로 가는 길은 꼬불꼬불 산길이다. 멀미하는 사람들은 좀 고통스러운 길일 것이다. 다행이 난 멀미를 하지 않는다. 삼성궁 주차장에 도착하니 청학동에서 나오신 훈사님께서 우리 탐사단을 기다리고 계셨다. 삼성궁으로 안내하기 위해서였다. 삼성궁은 배달민족 성전으로 한배임, 한배웅, 한배검 및 역대 나라를 세운 태조, 각 성씨의 시조, 현인과 무장을 모신 신성한 성역이라고 한다. 삼성궁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오랜만에 하는 산행길이라 몸은 좀 힘들었지만 기분이 상쾌해졌다. 모듬별로 줄을 서 삼성궁 입구에 도착해 삼성궁에서 나오신 도인의 설명을 듣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은 우리가 사는 곳과는 다른 세계인 것 같았다. 많은 돌탑들...그리고 머리를 길게 기른 여인네들...나보고 이곳에 살라고 하면 난 못살 것이다. 청학동으로 향하는 길...우리가 두 번째 밤을 묵을 청학동에 도착했다. 우선 식사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방 배정을 한 후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따로 나누어 예절강의가 시작되었다. 난 맨 앞줄에 앉았다. 그런데 식후라 그런지 앞에 훈장선생님의 말씀에도 눈꺼풀이 왜 이리도 무거운 건지...앞에 계신 훈장선생님께 너무 죄송스러웠다. 강의가 끝나고 아이들과 널뛰기도 하고 투호던지기도 했다. 모둠별 점수를 매겨 최우수 모둠을 뽑는다는 말에 다들 의욕이 앞섰다. 다음으로 인절미를 만들어봤다. 떡매치는게 힘들어 보여 걱정이 되었지만 막상 떡매를 들어보니 별거 아니었다. 솔직히 재밌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떡매치기가 끝나고 맛있는 인절미를 시식했다. 꿀맛이었다. 다음으로 활쏘기 체험에 들어갔다. 아이들이 마치 주몽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모두들 재밌어했다. 모두들 활을 쏘고 모둠별 사진촬영과 단체사진 촬영이 있었다. 나중에 책자에 실릴 사진이라고 했다. 잘 나와야 할 텐데...

우리 탐사단의 전체 강의를 시작되었다. 훈장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낮에는 그리 졸립더니 이번에는 허리가 아팠다. 우리 아이들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새삼 내가 초등학생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훈장님의 말씀이 끝나고 아이들의 발표회시간이 다가왔다. 국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터라 아이들 각자 발표회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상장과 상품권이 걸려있어서 더 그럴 것이다. 늦은 시간까지 발표회는 계속되었다. 부모님들은 채점표에 점수를 매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발표회가 끝나고 모둠장들이 모여 채점표의 점수를 합하여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가려냈다. 내일 시상할 준비를 다 해놓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비가 왔다. 청학동에 계시는 훈장 선생님, 훈사선생님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곡성군 죽곡면에 있는 하늘나리 마을로 향했다. 이곳에서는 밀랍 초 만드는 체험을 했다. 밀랍이란 벌집에서 채취한 재료를 말한다고 한다. 기대를 너무 많이 했던 것일까? 만들어진 밀랍초가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다. 실망이었다. 우리 체험단의 마지막 식사시간이었다. 마을에서 준비한 점심식사였다. 탐사단이 몇 집으로 나뉘어 식사를 했는데 시골의 인심이 물씬 풍기는 아주 맛있는 점심식사였다. 체험하면서 먹어본 밥 중에 제일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최우수 모둠 시상과 어제한 발표회 시상이었다. 그런데 우리 모듬은 아무상도 받지 못했다. 우리 모듬 지연이, 사무엘, 슬아, 승연이, 승곤이... 모두들 실망하는 빛이 감돌았다. 다들 너무 잘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쉬웠다. 그리고 너무 미안했다. 하늘나리 마을을 뒤로하고 그리운 곡성읍으로 향했다. 곡성군민회관에 도착하여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박 3일 동안 정들었던 우리 아이들과 헤어지려니 아쉬운 맘이 앞섰다.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으려나....이 체험을 마치면서 맨 앞에서 우리 탐사단을 이끌어 가셨던 조준원 사무국장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굿은일 다하셨던 배숙영 간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난 문화원 직원이지만 모듬장이라고 너무 편하게 다녀온 것 같아 죄송스럽다.

마지막으로 “제2회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에 참여하신 학생, 부모님, 모듬장 그리고 문화원직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살아가시는 동안 소중한 추억거리 하나 만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제2회 지리산 생태문화 탐사를 다녀와서...

최슬아(곡성 중앙초등학교 4학년 2반)

기대로 부푼 마음으로 지리산 생태문화 탐사를 가기위해 서둘러 군민회관으로 출발했다. 군민회관으로 가보니 많은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모여 있었다. 모둠별로 인원체크를 하고 차량에 탑승하여 첫번째 코스인 남계서원으로 갔다. 남계서원에는 홍살문이라는게 있는데, 그 문은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남한에서 2번째로 창건한 서원이다. 두 번째로 간곳은 상림이다. 상림은 방수와 방풍을 목적으로 만든 인공림이라고 한다. 연꽃이 필 무렵이면 세계의 각종 연꽃들을 볼 수 있다는데, 지금은 연꽃이 필 무렵이 아니어서 연꽃을 못 본게 정말로 서운했다. 세 번째로 간곳은 실상사 였는데 나는 그 절 이름을 처음 들어보았다. 기독교인인 나는 절에 가보아서 신기한것도 많이 보았고 교회와 다른 점들도 많이 보았다. 절은 왠지 조용하면서 신비로운 느낌을 가진 곳인 것 같다. 친구들과 같이 가서인지 몰라도 무척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절은 나에게는 재미있는 놀이터처럼 느껴졌다. 늦은 점심식사로 배가 많이 고팠지만 맛있는 채소들로 가득찬 뷔페에서 어기진 배를 채웠다. 네 번째로 간곳은 허브마을이었는데 아주머니께서 하모마일 이라는 따뜻한 허브차를 주셨다. 맛은 별로였지만 몸에 좋다고 해서 한잔을 더 마셨다. 그리고 허브로 비누만들기 체험을 했는데 아주 잘 만들어져서 기뻐다. 다섯 번째로 간 곳은 구례화엄사를 지나고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밤에는 친구들과 많이 뛰어 놀아서 정말로 재미있었다. 한밤을 자고 삼성궁으로 출발했다. 청학동에서 나오신 사오정 훈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더욱 알아듣기 쉬웠고 삼성궁으로 가는 길은 산길이라 가는길이 멀고도 험했다. 하지만 정상에 올라와서 돌탑들을 보았는데 정말로 멋있었다. 그것들을 다 쌓으려면 몇십년이 흘렀을까? 그땐 정말 궁금했다. 그리고 사오정 훈사님의 안내를 따라서 청학동으로 갔다. 청학동에서는 예절교육도 배우고 한번도 해보지 못한 떡매질과 투호놀이를 해 보았다. 난생 처음 한것이라 잘 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재미있었다. 그리고 화살쏘기도 하였다. 청학동 훈사님께서 활을 잘 쓴다고 칭찬해 주셔서 정말로 기뻐다. 저녁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발표하는 시간이다. 그때는 별로 떨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번 탐사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다. 그렇게 청학동 에서의 하루는 지나갔다. 아침부터 상한마을로 출발했다. 상한마을에서는 별집에서 나오는 밀랍을 이용해 초를 만들었다. 그리고 상한마을에서 밥을 먹었는데 정말로 꿀맛 같았다. 모든 체험을 끝내고 시상했다. 하지만 나의 이름은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많이 서운했다. 시상이 끝나고 그리운 집으로 출발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또 참여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 이번 탐사에 참여하게 해 주신 곡성문화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리산 생태문화 탐사를 다녀와서...

이승현(곡성 중앙초등학교 4학년)

저는 기대에 부푼 가슴을 안고 준비를 하여 군민회관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도착하자 1호차를 타고 출발하였다. 처음으로 간 곳은 남계서원 이었다. 그리고 상림, 실상사, 구례화엄사, 허브마을, 청학동 마을 등을 들렸다. 그중 제일 좋았던 곳은 상림 이었다. 연꽃잎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 연못 위에 있는 빨간색 잎이 있었는데 우리는 초록색 잎을 개구리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국산이 아니고 외국산 연꽃잎 이었다. 그리고 숙소 호텔에서 다른 학교 언니랑 친구가 함께 지냈고 정말 재미있었다. 다음에도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리산 청학동에서 체험학습을 하였다. 널뛰기를 하기도 하고 인절미를 만들었는데 둘이서 함께 떡을 치는데 너무 무거워서 힘이 들었다. 그렇지만 너무 맛이 있어 많이 먹었다. 그리고 활쏘기 투호도 했는데 너무 재미있었다. 저녁 늦게까지 체험발표를 하고 훈장님께 교육을 받았는데 즐겁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혼났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서 씻고 바로 잠이 들고 말았다. 다음날 하늘나리 마을로 가서 밀납초를 만들고 시상을 하였는데 우리 모두가 상을 타지 못해서 속상했다. 그렇지만 너무나 좋은 시간이어서 다음에도 꼭 오고 싶다. 밀납초를 집에와서 쳐보았는데 너무 좋았다. 지리산 생태문화 탐사를 다녀와서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지리산

지리산은
지리산은

정말 아름답고
정겨운 산

지리산에서
봄에는
꽃송이들이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이

가을에는
빨간 단풍이

겨울에는
하얀 눈송이가
가득하지요.

생태문화탐사에 여운을 남기며...

진경주(곡성 중앙초등학교 4학년 이승현, 5학년 윤종 어머니)

이른 아침 들떠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 또한 함께 뛰었습니다.

엄마를 무르며 어서어서 서두르라는 아이들 그리고 부푼 가슴을 안고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 여정은 시작 되었고...

2박3일이라는 일정은 가정에서 벗어나 우리 아이들과 온전한 나에 시간으로 묶어두고 싶은 마음으로 군민 회관으로 향했다.

군민회관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친구들을 찾기 시작하였고 나 또한 부모님들 찾았다. 사무국장님의 지시에 따라 딸아이와 난 2모듬 우리 아들은 3모듬 두 아이가 서로 다른 모듬이 되었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고 우리는 2호차에 올랐다. 차내에서 서로 인사를 했고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함이 보였다. 나 또한 우리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가자고 할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한번도 가지 못하고 말았는데 이번 지리산 생태문화 탐사는 학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어찌 해야 하나 고민을 잠시하다 '아니다' 내가 이번에는 아이들의 청을 들어주어야겠다는 마음으로 휴가를 내고 따라나서기로 하였다.

첫 목적지인 "남계서원"은 1552년에 개암 강익을 비롯한 함양 선비들이 정여창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였고 우리나라 최초 서원인 소수 백운동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건립된 유서 깊은 서원 이라한다. 이곳을 둘러보면서 우리아이들이 하나라도 더 배우게 하고픈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엄마에 마음 이었다. 넘나 지나친 욕심이었을 까요... 딸아이가 마냥 놀라운 냥 뛰어다니는 모습에 "그럼 다시는 이런 탐사여행은 못할 것이라고" 엄포도 놓은 것을 보면 말이다. 다음으로 도착한 "상림" 함양의 자랑이라고들 한다고 합니다. 최치원 선생이 함양읍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 조성한 숲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숲으로 우리 선조들이 홍수의 피해로부터 농경지와 마을을 보호한 지혜를 알 수 있는 곳 이었다. 역사적인 곳에서 마지막 가을 정취를 맘껏 누린 것 같다.

그다음으로 실상사의 3층석탑 2개, 백장암 석등, 철제여래좌상, 석장승 등등 문화재가 많았지만 그곳에 불교대학원이 있었다는 것과 중등교육의 대한 학교가 있다는 거에 놀랐다. 그때 그곳의 학생인 듯한 아이들을 보았는데 소박하고 때 묻지 않고 순수해 보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유기농법을 하고 있다고 한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의 기억이 새롭게 스쳐지나 기도 하였다.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온 거름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우리들의 어린시절 지금의 아이들은 상상도 못해본 일들이겠지만 그때의 신선함 들을 이곳에서 이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지리산 생태문화 탐사" 일행은 숲고를 향해 출발... 숙소를 들어가기 전에 숙소옆 구례화엄사를 들

르기로 하였다. 거므스레 어둠이 내리는 시각에 그곳을 찾아보니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절 내에서는 우측에 대웅전이 있고 좌측으로 각황전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아래 탑이 두개 있었다. 대웅전을 놓고 보았을 때는 2탑 1금당으로 보이지만 사선으로 보았을 때에는 1탑 1금당으로 보이고 규모가 대웅전보다 각황전이 크지만 아래에서 사선으로 보았을 때 대웅전과 각황전은 거의 비슷한 규모로 보여 그 웅장함을 뽐내고 있었다. 예전에 왔을 때는 그런 건 염두에 두지 않고 외관만 둘러보다 다녔건만 생태문화탐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들을 알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밝은 날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한다. 하루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하루일정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집에서와는 다른 모습을 많이 보았다.

다음날 청학동에 위치한 “삼성궁” 삼성궁을 둘러 징을 세 번 치니 바위 틈 문으로부터 고구려시대 복장을 하신분이 나오셔서 우리 배달의 민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후 삼성궁 안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리산 자락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넓은 평지위에 수백개의 솟대와 연못, 성안을 보며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에 연신 사진을 찍으며 앞으로 앞으로 전진 짧은 시간 관계로 성안을 세세히 보지 못해 아쉬운 여운을 남기며 성밖으로 나왔다. 청학동을 향해 출발하여 “청학동” 말로만 듣던 땀겨리를 하고 다닌다는 청학동에 도착하여 옛 모습의 서당을 둘러보았다. 6.25후 지리산 공비소탕으로 인해, 일시에 그 마을이 없어지고, 그 뒤로 청학동 주민들이 모여 옛 모습을 지키며 선현들의 얼과 전통을 계승하며 생활하고 있어 아이들과 예절교육을 받으며 체험학습을 할 수 있었다. 하루를 그곳에서 지내고 다음날 이른 아침 산책을 하였다. 바쁜일과에 ◎기며 살다보니 얼마 만에 걷는 산책길인지……너무나 상큼하고 싱그러운 산책길 아이들과 이야기도 하고 학부모님들과 얘기를 나누며 산책길을 걸으니 너무 좋았다. 다음은 우리고장 곡성 하한에 자리하고 있는 “하늘나리” 마을 이곳은 지난 10월에 잠깐 들른 적이 있는 곳이었다. 하한마을에 체험장이 있다고는 했지만 이리도 높은 곳에 마을이 있으리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던 곳이다. 이곳이 왜 하늘나리 마을이라고 하였을까?…이곳에 자생하는 하늘나리라는 꽃이 많이 피어난다고 하여 하늘나리 마을이라고 한다. 처음에 와서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 했던 것이 기억난다. 이곳에서 마지막 체험을 하고 청학동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체험발표를 하였던 결과를 보기위해 모둠별 활동결과를 보기위해 아이들은 한 곳에 모여앉아 자기 모둠이 제일 잘했다고 아니 내가 발표를 제일 잘했을 거란 자신감으로 자리에 앉아 결과를 기다리고 발표를 할 때 마다 아이들의 아쉬운 표정들이 눈에 선하다. 우리 아이들 “상을 타지 못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 이렇게 아이들은 머물어가겠지?…

목적지를 향하는 내내 사무국장님은 저희 모두에게 보다 많은 가르침을 위해 목적을 높여 열심 이셨죠… 퀴즈를 내기도하고 다녀온 곳에 내용을 다시한번 숙지해주시기도 하고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한 2박3일 동안의 생태문화 탐사는 오래도록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앞으로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가족들끼리 체험을 다닌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을 거라는 마음과 함께 지리산 생태문화 탐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2회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조현주(석곡초등학교 4학년2반 유지연 어머니)

작년에 아들을 데리고 체험한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에 좋은 기억으로 올해는 딸아이를 데리고 다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직장에 다닌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하지 못했었는데 좋아하는 딸아이의 얼굴을 보고 정말 신청을 잘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약간 쌀쌀한 날씨에 처음으로 보는 친구들과 2박 3일을 잘 보낼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그건 엄마의 기우였나 봅니다. 부대끼며 재잘재잘 수다를 떠는걸 보니 많이 자랐구나란 생각이 듭니다. 지리산자락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며 고향입니다. 우리가 지리산자락에 살아가면서 지리산은 당연히 그곳에 있으려니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점에서 엄마인 저에게도 이번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는 많은걸 느끼게 했습니다.

첫째날 함양의 남계서원 상림 그리고 남원의 실상사 운봉의 허브마을 ,그리고 구례의 화엄사 둘째날 하동의 삼성궁과 청학동서당 마지막날 곡성에 하늘나리 마을까지 3개도 5시군을 오가며 많은걸 느끼고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지리산 자락에 많은 사람들이 터전을 일구고 살아 가는구나 그만큼 지리산을 소중히 생각을 해야 겠구나 그중에 삼성궁에 대한 기억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무수한 시간동안 사람의 손으로만 쌓아 올린 돌담과 계단들 그리고 돌담들을 보고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요즘은 너도 나도 빨리 빠리는 외치는 시대라 몇 년에 걸쳐 일일이 손으로 쌓고 만들어간 그 정성과 노력은 아마 해보지 않은 우리들은 결코 느끼지 못하겠지요. 환인 ,환웅, 단군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신화 속에 인물이다 그리고 단군은 고조선을 처음으로 세워신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단군이라는 호칭이 이름이 아닌 통수권자 이름이란것두 배달의 민족에 배달이 하늘,우주 태양을 뜻한다는 것을 아이들 처럼 삼성궁에 가서 설명을 들으며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세분의 영정을 모셔 놓고 제사도 지낸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뿐만아니라 우리 어른들 자신도 한번쯤 되돌아 보며 생각하게 만든곳 이였습니다. 아이가 2박 3일동안 지리산을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들으며 공부한게 살아가면서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많아서 우리 곡성어린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경험을 해봤으면 합니다.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유지연(곡성 석곡초등학교 4학년 2반)

작년에 오빠가 지리산생태문화 대탐사에 다녀와서 재미있었던 말에 저도 이 체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설레여서 일찍 눈이 떠 졌습니다. 짐을 챙겨 버스를 타고 첫 번째로 갔던곳은 함양 남계서원입니다. 1552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서원으로 16세기 일두정여창 선생님을 기리며 강의 선생님이 세우신 사액서원입니다. 남계서원은 함양의 선비문화를 대표하는 서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향교와 서원의 차이점을 알았습니다. 향교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립교육기관이고 서원은 사림이 지어서 운영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지어진 교육기관이며 제사를 지낼수있는 사당을 함께 지었다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상림을 가보았습니다. 두번째 상림은 통일 신라시대 말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으로 만들어진 숲이라고 합니다. 상림의 주요 기능은 방수 .방풍의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상림,중림,하림이 있었는데 개발로 인해 다 사라지고 상림 한곳만 남았다고 합니다. 남은 상림 한곳만이라도 보전해서 후손들도 다 볼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 실상사는 신라 흥덕왕3년 흥척국사가 만든 최초의 선종가람으로 평지에 세워진 절입니다. 선종이라고 하는것은 참선을 중요시 여기는 거라고 합니다 국보 백장암10층석탑 1점과 보물 수철화상능가보월탑등 10점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에 쫓기어 다보지 못하고 온것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맛있는 야채부페로 점심을 먹고 간 허브마을에선 허브차 시음과 허브비누를 만들었습니다. 허브차는 한모금 마시니 입속에서 그 향들이 맴돌고 맛있었습니다. 또 허브비누를 내손으로 만드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트로 이쁘게 만들어진 비누는 선생님께 선물로 드려야 겠습니다.

둘째날 삼성궁을 가보았습니다. 산기슭을 20분 걸어서 올라간 삼성궁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돌을 하나하나 정성들여 쌓은 탑과 건물 그리고 돌로 만들어진 계단들이 너무 신기하게만 느껴 졌습니다. 삼성궁의 삼성이란 환인,환웅,단군을 모신 사당 같은 곳 이라고 합니다. 환인은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처음으로 쓰신분이시고 7대 환인에 걸쳐 다스리고 환웅은 6000년전에 배달국을 세워 18대 환웅까지 다스렸고 단군은 4400년전 고조선을 세워 47대 단군까지 다스렸다고 합니다. 환인,환웅,단군이 이제까지는 이름인줄 알았는데 통수권자의 호칭이란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민족을 배달민족이라고 하는데 배달이라고 하는뜻은 밝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밝음은 곧 태양,하늘,우주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민족이란걸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겠습니다. 청학동에서는 공수라는 인사법을 배우고 한자를 배웠습니다. 활도 쏘아보고 투호놀이랑 널뛰기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떡을 우리손으로 직접 쳐서 만들어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셋째날은 다시 곡성으로 돌아와 밀랍초를 만들었습니다. 밀랍이란 벌집으로 만든거랍니다 천연젤료로 만든 초는 불을 붙이면 꿀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엄마와 여행이라서 더욱 좋았고 그리고 지리산을 가까이 두고 살고 있지만 지리산에 대해 너무 몰랐었는데 이여행으로 지리산에 대해 많은걸 알았습니다. 여러 친구들도 많이 사귄수 있었고 우리 문화에 대해 여러 가지 알아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문화에 대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겠습니다.



지리산아! 내가 간 다

이미선(곡성 입면초등학교 5학년 나사무엘 어머니)

“뚜두두, 뚜두두, 나의 단잠을 깨우는 알람소리 하지만 오늘은 그 소리가 싫지 않다.

고대하고 고대하던 지리산 생태문화 탐사를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밥하라, 몸단장 하라, 아이 깨우라, 정신이 없다.

다행스런 것은 냄비가득 끓여놓은 곰국과 라면 봉지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다. 2박3일 남편의 비상식량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과 다른 출근길 아침, 뽀뽀에 포옹까지 받은 남편이 지갑을 열어 용돈을 준다. 입이 귀에 걸린 아들과 나, 돈을 받으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걸까?

발걸음을 재촉해 곡성군민 회관에 도착해 보니 곡성문화원 국장님께서 하루 일정을 이야기하고 계셨다.

내가 속한 조는 2조. 아들과 나란히 버스에 오르고 보니 이번 여행이 실감이 난다. 우린 조선조 선비 문화 체험을 위해 경상남도 함양에 있는 남계서원에 갔다. 향교와 서원에 대해 배웠다.

향교는 국립 교육기관이고 서원은 사립교육 기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세워진 남계서원, 지금은 퇴색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어렵פות이 유생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남원의 천년사찰인 실상사로 이동을 한다.

그런데 이게 웬일! 무슨 바람이 그렇게 세찬지...

가을과 겨울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나보다...

한쪽엔 흥단풍이 가을의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 동장군이 바람을 일으키니 우리들은 희생양이 되어 옷깃만 여일 수밖에...

보통 절은 산속깊이 있는데 실상사는 조금 걸어가니 평지에서 우리를 맞이했다.

평지사찰이라 한다. 최초의 선종사찰인 실상사는 훼손되지 않고 보존이 잘되어 있었으며 많은 보물과 국보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 참 다행스러웠다.

국장님께서 화장실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라 하셨다.

참 별난 여행코스도 다 있다.

아이들은 찡그린 얼굴로 마지못해 줄을 서서 들어갔다.

일을 보고 난후 톱밥을 한 바가지 부으라고 써어있었다.

자연 발효된 인분을 이용 친환경 농사를 지어 다시 섭취한다 했다.

화장실 구분도 남, 여 가 아닌 “선남, 선녀” 로 표기돼 있어 재미있었다.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점심시간. 채식 뷔페로 민생고를 해결하고 남원운봉 허브 마을로 향했다.

기존의 농촌마을에서 탈피, 허브마을로 급성장하여 고수익을 창출해낸 곳이었다. 허브향이 풍기는 푸른 농원을 기대하고 갔는데 아쉽게도 시기가 안 맞아 볼 수 없어 무척 유감스러웠다. 그 대신 허브 비누를 만드는 실 경험을 했다.

이아들과 직접 체험하니 동심으로 돌아 간 듯 했다. 만든 비누를 아들 속옷 서랍에 넣어줄 생각이다. 아들 녀석 팬티에서 라벤더 향기가 풍길 걸 생각하니 미소가 절로 난다. 오늘 우리가 숙소가 있는 구례화업사로 이동했다. ‘차창 밖으로 맘껏 자태를 뽐내는 단풍들 너무 아름다워 함성이 절로 난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산하에 감사함을 느낀다. 희뿌연 어둠속에서 우리를 맞이한 화업사 중학교 수학여행 때 와본 기억이 난다. 그때는 그렇게 커 보였는데 오늘은 웬 지 작아 보인다. 내가 그 만큼 커 버린 걸까?

우리나라의 절은 난리 통에 많이 소실돼 재건축한 사찰이 많은데 구례화업사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참 다행스러웠다. 그런데 숨은 공로자가 있었다. 화업사를 소각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무시하고 허위 보고하여 그 귀한 문화재를 보존한 차일혁 총경 목숨과 직위에 연연하지 않은 그 분의요기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오늘은 2일째 탐사 날

일찍 여장을 꾸려 하늘아래 첫 동네인 청학동을 향했다.

‘호기심 반, 부푼 마음 반, 전통복장에 하이얀 고무신을 신은 선생님이 우릴 맞이했다.

그 분 안내를 따라 우리나라를 건국한 황인, 환웅, 단군 등 각 시조를 모신 삼성궁을 구경하고 청학동의 첫 정착 자이신 할머니 집도 방문하여 기념촬영도 했다. 오후엔 우리 전통 놀이인 “널뛰기! 활쏘기, 투호놀이, 인절미 만들기를 했다. 그중에서도 인절미 만들기가 제일 재미있었다.

63명의 모든 참가자가 직접 돌아가며 떡메로 쳐서 만든 특별한 인절미의 맛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청학동에 가면 잠자리와 세면은 어떻게 할까? 식사는! 하고 은근히 걱정을 했었다. 하지만 나의 걱정은 불필요한 걱정이었다. “된장에 박아 삭힌 고추, 깻잎김치, 고사리나물 등 전통음식도 맛있었고 찹쌀방 처럼 찹쌀 꿩알 온돌방도 잊혀지지 않는다.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뒤엉켜 코를 들들 꿏았던 그 넓은 방도 이제 하나의 추억이 돼버렸다.

3개도와 7개 시군에 위치한 지리산, 경상남도 함양을 거쳐 전라북도 남원 실상사 전라남도 구례화업사 경상남도 하동을 두루 섭렵한 지리산 대탐사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버스 안에서 쉬지 않으시고 하나라도 더 지식을 알려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퀴즈를 내시고 우리 뇌를 쫓아내 하셨습니다. 곡성문화원 국장님의 열정과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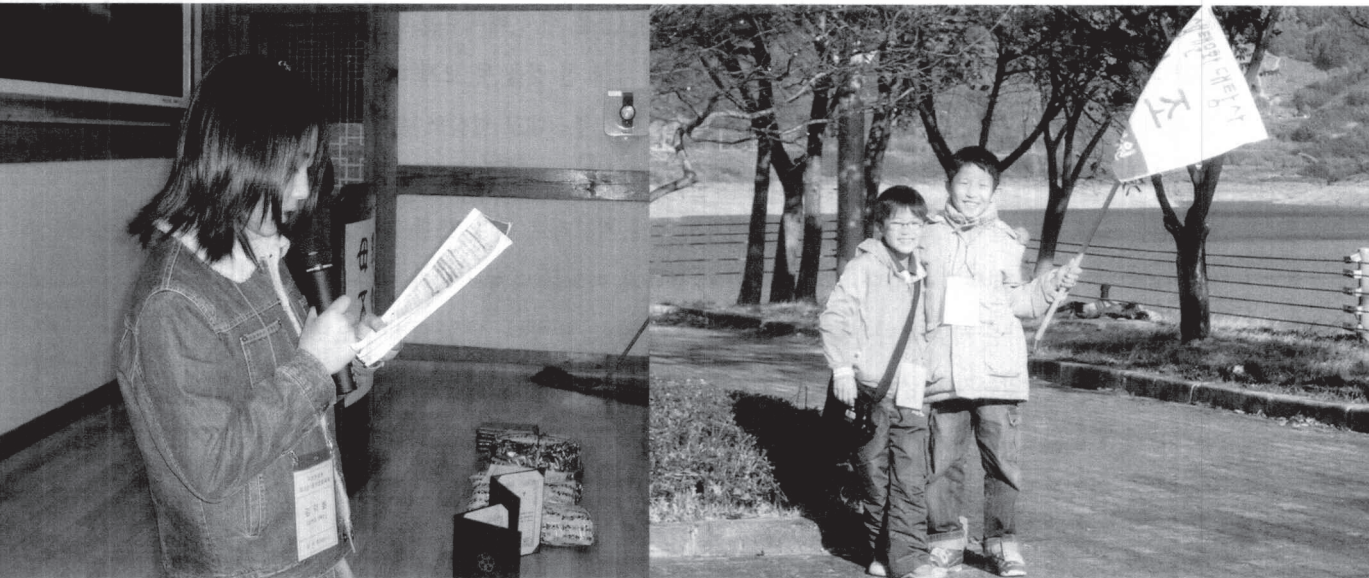
아이들과 함께한 귀중한 체험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더 열심히 적극 참여하여 보람을 느끼겠다고 아이와 다짐을 해 봅니다.

지리산 생태문화 탐사를 다녀와...

나사무엘(곡성 입면초등학교 5학년 2반)

나는 엄마와 함께 지리산 생태문화 탐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사실 학교와 학원이 가기 싫어서 온 목적도 있는데 선생님과 이이들이 그렇다. 처음엔 함양에 있는 남계서원에 갔었는데 선비들이 공부했던 곳 이라고 한다. 홍살문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걸 뜻 하고 있다고 한다. 그 밖에 삼성궁, 상림숲, 실상사, 화엄사, 허브마을 등을 갔었는데 삼성궁은 만화에 나오는 비밀요새 같았고 허브마을 에서는 허브비누를 만들고 엄마가 발표를 해서 선물을 탄 후 저에게 주셨을 때 참 고마웠다. 내가 커서 호강시켜드려야겠다. 화엄사는 대웅전과 각황전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 오른쪽 계단에서 보면 대웅전과 각황전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 오른쪽 계단에서 볼 땐 각황전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 오른쪽 계단에서 보면 대웅전과 각황전이 크기가 똑같이 보이고 왼쪽계단에서 볼 땐 각황전이 더 크게 보인다. 대웅전과 각황전의 참 모습을 보려면 오른쪽 계단에서 보아야 한다고 하셨다. 제일 재미있던 곳은 청학동 이었다. 나는 청학동이 무섭고 엄격한 곳 인줄 알았다. 그런데 엄격하긴 해도 무섭진 않았다. 청학동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했는데 예절교육에선 큰 절(계수배) 반절을 배웠다. 인절미도 직접 만들어 먹었는데 떡매로 떡을 쿵덕쿵덕 치니 스트레스가 날라가 버렸다. 마지막으로 활쏘기를 했었는데 나는 드라마에 나오는 주몽처럼 활을 잘 쏘고 싶었지만 팔 힘이 부족해서 잘 쏘진 못 했지만 즐거웠다.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이 있다면 꼭 참가하겠다.



지리산 생태 문화체험을 다녀와서..

김림(곡성 중앙초등학교 4학년 2반)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군민회관으로 갔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군민회관에서 이번 지리산 문화탐사의 일정에 대해 설명도 듣고 조도 불러주셨다. 나는 3조가 되었다. 삼기초등학교에 다니는 선중이와 같은 조가 되어서 좋았다. 버스를 탈 때 나는 홍이와 같은 차를 탈수 없어 서운했다. 차 안에서 문화원 국장님이 지리산에 대한 여러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문제도 내셨다. 처음으로 간곳은 경상남도 함양에 있는 남계서원과 상림에 갔다. 그곳에서 향교와 서원에 대해 배웠는데 난 설명도 너무 빨리 하고 어려워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다음은 실상사를 갔는데 실상사에서는 석탑에 대해서도 배웠고 철로 만든 불상도 보았다. 나는 탑은 흙수 층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해우소라는 화장실도 있었는데 냄새는 낫지만 이곳에서 받아지는 배변으로 거름을 만들어 무공해로 채소를 가꾼다고 했다. 허브마을에서는 비누를 만들었다. 나는 초록색 나뭇잎 비누를 만들었다. 비누가 만들어지는 동안 조별로 3분 스피치 대회를 했는데 엄마가 해서 향기나는 볼펜을 받았다.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았다. 저녁에 숙소로 들어와 저녁을 먹고 친구들과 밤 늦게 까지 놀았다. 넓은 방에서 엄마와 둘만 자는것도 좋았다. 다음날 청학동에 갔다. 청학동 가는길은 꼬불꼬불 산길이었다. 멀미가 날 것 같았다. 삼성궁에 가서 징을 치니 산신령 같은 도사님이 나오셔서 배달민족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셨다. 배달민족의 자손인 우리들은 한국인의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다. 그곳에서 주몽에서 나오는 삼족오도 있었다. 청학동에서 여러 가지 민속놀이도 하고 예절교육도 배웠다. 밤에는 강당에 모여서 이틀 동안의 체험내용을 3분 스피치 하는 시간을 했다. 조별로 장기자랑도 했는데 우리 3조가 1등을 해서 빼빼로를 받았다. 3분 스피치를 하는데 나는 17번째로 했다. 하필이면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메모 한 것을 못 보게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라고 해서 난 너무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엄마가 가르쳐 주신대로 열심히 했다. 잘 하지는 못했지만 하고나니 시원했다. 마지막날 죽곡에 있는 하늘나리 상한마을에 가서 밀납초를 만들었다. 매달 마지막 금요일은 초를 키는 날이라고 하셨다. 나도 집에가서 초를 쳐보기로 했다. 초를 만들고 마을의 할머니께서 차려주신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친구와 놀다가 머리를 다쳐서 피가 났다. 엄마가 화가 많아 나셨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병원에 오느라 폐회식을 못했다. 누가 상을 받았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이런 체험에 또 참가를 하게 되면 조심을 해야겠다. 이번 지리산 생태 문화체험을 하면서 많은 지식과 문화유산을 배울수 있어서 좋았고 엄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지리산 생태문화 탐사를 다녀와서.

이순옥(곡성 중앙초등학교 4학년 2반 김림 어머니)

소풍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며칠동안 흥분과 긴장이 가라앉질 않았다. 우리 다섯 식구 중 림이와 단둘이 가는 여행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사실 2학년엔 다니는 막내 범이도 같이 신청을 해서 두 아들과 가기로 했는데 전날 생각을 바꾸었다. 늘 형이라는 이유로 동생에게 양보만을 강요하며 키워 온 것이 맘에 걸려 이번에는 림이만 데리고 가기로 했다. 체험 당일 늘 무심하게만 느껴던 남편도 내가 집을 3일씩이나 비운다고 생각을 했는지 조금은 긴장을 하는 눈치였다. 혹시나 차 멀리를 할까봐 차타기 3시간 전에 림이와 내 귀에 키미테를 붙여주는 자상함도 보여줬다. 곡성을 거의 벗어나보지 못한 나는 가는 곳 마다 생소했다. 함양에 있는 남계서원에 가서 향교와 서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서야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 사실 여름방학 숙제로 곡성유적지 보고서가 있었는데 덕양서원이며 용산제

등 곡성 유적지를 둘러 보면서 그저 사진 찍기에만 급급했던 내가 부끄러웠다. 평소에 조금만 깊은 있는 공부를 했더라면 우리 아이에게 좀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았다. 허브마을에서 3분 스피치를 하는데 우리조에서는 립이가 했으면 하고 립이를 감언이설로 꼬였지만 평소 발표력이 부족한 립이는 끝내 못했다. 다음은 엄마들 스피치 시간.. 내가 아이에게 강요를 했듯이 내 아이도 엄마가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나또한 말주변이 없는지라 남 앞에서 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 긴장된 일이었다. 하지만 아이에게 서투르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기꺼이 했다. 부상으로 향기나는 볼펜을 받아 립이에게 선물을 했다. 작은선물에 기뻐하는 아이를 보니 나또한 기뻐다.

두 번째날.. 청학동으로 향했다. 청학동은 우리 아이들을 한번쯤 꼭 보내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넘 멀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생각만 하고 있었던 차라 기대가 되었다. 삼성궁에 도착했을 때 거대하고 웅장한 돌탑들을 보고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도인마을에 갔을 때 훈장님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수줍음 가득한 모습을 보고 욕심을 버리고 살면 저렇게 곱게 늙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청학동 서당에 도착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생활이 현대식으로 되어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하며 잠시나마 어린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청학동 서당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곡성군 죽곡에 있는 하늘나리 상한마을로 향했다. 30년 넘게 곡성에서 살았으면서 이런 곳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다. 그곳에서 밀납초를 만들고 매월 마지막 금요일은 촛불 켜는 날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다. 마을 어르신 댁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한상 가득 차려져 더 이상 놓을 곳도 없는데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자꾸 음식을 내오시는 어머니를 보니 친정엄마 생각이 났다. 손수 만드신 두부에 매실장아찌, 더덕무침등 정성 가득한 점심을 잘 먹고 내려오는데 립이가 다쳤다는 말을 들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립이를 보고 걱정보다 화가 앞섰다. 한시간정도만 있으면 폐회식을 할 텐데 다른 분들께 걱정을 끼치는 것이 맘에 걸렸다. 길지 않은 여행이었지만 내게 평소에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느끼게 해준 여행 이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작은 아이와 함께 참가하고 싶다. 국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구요.. 이런 기회가 곡성에 사는 우리 아이에게 많이 주어지도록 더욱더 힘써주세요.

지리산 생태 문화대탐사를 다녀와서...

김형인(곡성 입면초등학교 5학년)

200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나는 지리산 생태 문화대탐사라는 곳을 갔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짐을싸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군민회관으로 왔다.

사람들이 많이 와있었다. 조를정하고 버스에 올라탔다. 실상사, 화엄사, 산림, 호텔, 허브마을, 하늘나리 마을, 청학동등.. 많은곳을 갔다. 그중에서 나는 허브마을과, 호텔, 하늘나리 마을, 산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허브마을에서는 허브비누 만들기를 하였다. 들어오자마자 허브냄새가 확 풍겼다. 너무 허브냄새가 좋았다. 먼저 설명을 듣고 만들기를 하였다. 허브원액에 색소를 넣고 오일을 넣고 잘저어준다. 그리고 모양틀에 넣는다. 그러면 서서히 굳기 시작하는데 다음일정으로 가야해서 냉동실에 넣어놓았다. 얼리는 동안 문제를 풀고 노래도 하고 시도낭송하였다. 너무 재미있었다. 그다음에 화엄사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호텔 시설도 너무 좋았다. 우연찮게 소영이랑 같이 잤게 되어서 너무좋았다. 그다음 마지막날에는 하늘나리 마을에서 밀랍초 만들기를 하였다. 밀랍은 꿀찌꺼기를 하룻동안 푹 삶으면 물위에 떠오르는데 그게 밀랍이라고 하셨다. 밀랍을 끓였는데 밀랍냄새가 너무 안좋았다. 그래도 다 만들고 나서는 색깔이 너무 예뻐다. 그리고 민박집에서 밥도 먹었는데 밥도 너무 좋고 밥도 너무 좋고 집도 너무좋았다. 그리고 주인집 할머니께서 특별히 서비스로 말랑말랑한 감도 주셨다. 감이 너무 탐스러웠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아파트 도서관 못지않게 재미있는 책도 많아서 좋았다. 그리고 산림도 갔었는데 나무가 우거져있어 아름답고 낙엽이 바스락바스락거리는소리가 너무 좋았다. 그리고 물도 너무 맑았고 수많은 식물도 너무 많이 있어서 신기했었다. 이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좋았고 내가 잘알지못한 것을 알아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특히 산림같은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곳에는 우리가 더 아끼고 더럽히지 않아야 겠다는 생각도 하였다.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지도 느끼게 되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우리 집이 소중한다는 것도 느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가고싶은곳이다. 다른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곳이기도 하다.

지리산은 내것이였다!

김소연(곡성 입면초등학교 4학년 1반)

한가지라도 배우고 오려고 다짐했던 어제부터 기다리는 오늘 아침에 지리산 가는 설레임이 다가 왔다. 곡성군민회관에 도착해 버스를 타고, 처음으로 간 곳은 남계서원이다. 남계서원이 2번째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향교와 서원이 있는데 향교는 국립학교이고 서원은 사립학교이고, 사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두 번째로는 상림에 도착했다. 상림은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다. 가을이라 낙엽이 많이 있어서 엄마와 손을 잡고 밟으니 바스락 바스락 나는 소리가 더욱 더 좋았다. 상림은 116종의 나무가 1.6km의 둘을 따라 80~200m폭으로 조성되어 있다.

세 번째로는 실상에 갔다. 실상사는 신라 흑덕왕 3년에 홍척국사가 개창한 최초의 선종가람이다. 실상사에는 옛날 화장실이라는 해우소가 있었다. 이 화장실은 환경에 도움이 많이 되는 화장실이다.

많은 시간이 지나 허브마을에 도착하였다. 정말 집이 좋은데에서 비누를 만들다니 빨리 하고 싶었다. 내가 만들어볼때는 가루로 만들어 보았는데 이번에는 판을 이용해 굳어가는 비누를 만들다니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

한 30분이 되어 비누가 완성되었다. 모양이 이뻐다.

그 다음으로는 화엄사에 갔는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곳 구경하고 한 곳에서 설명을 듣고 숙소로 갔다.

그 다음 날 청학동으로 출발했다. 청학동가기 전에는 풍경이 좋은 곳에서 사진 찍고 삼성궁에 왔다. 삼성궁에서 설명듣고 안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데 옛날 물건이나 화려한 건물이 있어서 사진도 찍으려고 했는데 어두워 사진을 못 찍어 아쉬웠다.

청학동에 도착해서 예절교육을 배우고 투호놀이를 했다. 나는 부끄러움이 많아 못하면 창피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지만 우리 조가 이기기 위해 했는데 하나도 못 넣어서 아쉬웠지만 재밌는 경험이었다.

그 다음은 인절미 만들기다. 나는 언니의 친구와 떡을 찍었는데 무거웠지만 재밌었다. 조금 쉬다가 활 쏘기를 했다. 나는 딱 꽃히면 좋겠는데 2번은 스쳐가고 1번은 맞다가 튕겨가 아쉬웠다. 활쏘기는 보기에 쉽게 보였는데 직접해보니 어렵고 손가락이 무척 아팠다.

이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2박 3일동안 보람차게 지냈고, 짧은 시간동안 많은걸 배우고 언니, 오빠들과 좋은 경험이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와서 더욱 더 많은 걸 배우고 싶다. 함께 해주신 우리 엄마가 고마웠다.

2박 3일동안은 지리산이 내것이였다!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안은비(곡성 석곡초등학교 3학년 2반)

직장에 다니시는 엄마를 졸라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에 참여했다.

날씨가 추운데도 기대되고 설레어서 춥지가 않았다.

곡성 군민회관에서 출발해 처음에 도착한 곳은

함양군에 있는 남계서원이었다. 남계서원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이고 일두 정여창 선생님께서 설립하셨다.

그리고 조선시대 교육기관은 크게 향교, 서원, 사가 있는데 향교는 국립

이고, 서원은 사립이고, 사는 제사만 모시는 곳이라고 우리를 안내하는

문화원 아저씨가 여러번 강조하셨다.

두 번째로 상림을 갔는데 호수와 돌다리가 너무 좋았고 엄마와 손을 잡고

걷는것도 좋았다.

남원에 있는 실상사의 입구에는 사찰을 수호하는 석장승이 있다.

나는 목장승은 많이 보았는데 석장승을 처음 보아서 신기했다.

실상사에는 쌍탑과 1금당이 있고 스님들을 가르치는 학교와 대한학교가 있다고

한다. 생태뿔간에서 코를 막고 볼일도 보았는데 좋은 거름이 된다고 한다.

또 허브마을에서 허브 비누를 만들었는데 집에 있는 동생 은지가 생각나서

난 두 개를 만들었다. 은지의 좋아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향도 좋고 머리도 맑아져서 허브비누 만든 시간이 제일 즐거웠다.

둘째날은 청학동에서 인절미도 직접 만들어 먹고 널뛰기, 활쏘기, 투호놀이를

했는데 잘 되질 않아 속은 상했지만 즐거운 시간이었다.

마지막날은 비가 와서 하늘나리 마을에서 밀랍초 만들기만 하고 할머니가 해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돌아오는 버스안에서 으름상을 받은 4조의 방석이 가지고 싶어서 엄마에게

혼이 났지만 재미있고 즐거운 체험이었다.

다음에는 열심히 듣고 보고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조유숙(곡성 석곡초등학교 3학년 2반 안은비 어머니)

딸과 단 둘만의 2박 3일이라는 여행이 날 흥분시켰다.

모두들 나와 같은 마음인지 추운 날씨에도 기대에 부풀어 표정들이 밝았다.

버스안에서 인사말속에 많은 사랑과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싶다고했다. 문화원의 사무국장님의 설명으로 지리산은 전라남도 구례군, 곡성군, 전라북도 남원시, 장수군, 경상남도 함양군, 하동군, 산청군으로 3개도 7개시군에 걸쳐 있다고 한다. 또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 1호로 높이 1,915m로 남한에서 2번째로 높은산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처음으로 도착한 함양군의 남계서원은 일두 정여창 선생님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으로 입구에는 홍살문이 있어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하마비의 의미도 알게 되었다. 조선시대 교육기관으로 향교, 서원의 차이점과 곡성의 최초의 사액서원이 오곡 오지리의「덕양서원」이라는 사실도 부끄럽지만 이제 알았다.

내가 살고 있는 석곡의 방송리에는 마천목장군의 묘가 있고 「마천목좌명공신녹권」이 보물 제1469호라 한다. 필기도구를 챙기고 카메라를 챙겨 안내원의 설명에 따라 열심히 메모하고 귀기울여 보기는 학창시절 수학여행 이후로는 처음인거 같다.

눈도장만 찍고 ‘아! 좋구나’ 했던 관광하고는 사뭇 느낌이 다르다.

무엇인가를 알고 나의 지식으로 쌓아가는 일은 즐거운 일이 아닐수 없다.

상림으로 가는길은 매우 운치가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코스로도 좋을듯 싶다.

방수,방풍의 역할로 최치원군수가 숲을 조성했다고 한다.

남원의 실상사에는 국보「백장암삼층석탑」을 비롯하여 단위 사찰로는 가장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약사전의 철로 만든 약사불상을 보면서 백제인의 지혜와 예술감각을 엿볼수 있었으며, 무궁화모양의 문살도 참 인상적이었다. 문화원의 사무국장님의 안내에 따라 꼭 들러야 할 곳 생태뒷간에서 친환경사업에도 동참을 하고 기념사진도 찍고...참 우습다.

허브하우스에서 감기에 좋다는 캐보마일허브차도 한잔 마시고 비누도 직접 만들어 본 시간들이 허브향만큼 그윽했다.

청학동. 생각만큼 운치있고 옛 모습을 찾아 볼 수는 없었지만 널뛰기,국궁활쏘기, 투호놀이등 전통놀이 문화체험에 엄마들이 더 즐거워하는 모습들이었다.

삼성궁은 한인.한웅.단군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한 곳으로 배달민족과 대한민국의 국호의 의미를 바로 알

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하고 각자의 자아실현 회복을 위해 노력하자라는 원장님의 말씀이 귓전에 맴돈다.

청학동에서의 사랑하는 내 딸과 함께한 새벽 산책은 잊을수가 없다.

많은 대화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는 책을 많이 읽겠다는 딸의 약속을 믿으며 너무나도 감사한 여행이었다.



지리산 대탐사

이지현(곡성 고달초등학교 5학년 1반)

지리산 대탐사. 주말에 참 집에만 있고 싶었던 나는 목요일 날 독서토론 대회를 마치고 학교로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하고 승곤 이가 지리산 대탐사에 뽑힌 것입니다. 승곤 이랑 가는 것도 좀 그렇지만 주말에 설 수도 없다니. 해서 좀 가는 것이 짜증이 났습니다.

당일전. 나는 걸린 거 끝까지 가보자고 해서 열심히 저녁에 짐을 싸고 나와 왔습니다! 다음날내동생과 나는 내동생의 친구의 아빠차를 타고 국민회관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대탐사에 대한 설명을 몇 가지들은 뒤에 버스를 탔습니다. 위-잉 하면서 버스를 타고 처음간곳은 남계서원 이었습니다. 옛날에 선비들이 있던 곳이라 그러지 살짝. 허름해 보여도 웬지 고풍?스럽다는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강의도 듣고 하지만 남계서원의 중요한 부분까지는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를 건너며 버스를 타고 또다시 삼림 이라는 곳으로 가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나무와 잎들이 가을 카펫을 깔듯이 갈아져 있어 훗. 내가 쿵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삼림은 너무나도 멋진 곳 이었습니다. 나무도 많고 바람도 많이 불고 물도 졸졸 흐르는... 그리고 그곳에는 신기한 식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빨간색으로 된 개구리밥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애들은 지나쳤겠지만 저는 그것을 초록색 색깔이 맘에 안들 어서 새로 염색한 개구리밥 이라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우리 조는 모두 웃었습니다. 이 삼림이 있는 함평은 인삼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평의산에 모두 인삼 시를 뿌려놓아. 사람들이 많이 모이도록 했다는 것을 듣고 저도 나중에 가족들이랑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재미있던 것은 허브마을 이었습니다. 거기서는 허브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베이스를 붓고 색소와 오일을 부은 다음에는 저어서 모형 틀에 굳히고 그다음에 기다리면서 발효회도 같고 좋은 시간이 된 거 같습니다. 나중에는 포장이 예쁘게 된 비누를 보좌하니 너무나도 만족 쓰러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텔로 가서 방을 정한다음 저녁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피곤한 몸으로 다음 도착지인 청학 동을 가였습니다. 버스를 오랫동안 타고 드디어 도착 했다 싶었는데 청학동 수련장이 아닌 삼성 궁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옛날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그리고 삼성궁의 안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멋져서 입을 다물지 못하겠습니다. 경치도 멋있고 거기에는 진짜로 사람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사진도 찍고 기와집도 많고 삼죽오 그림에. 옛날 같았습니다. 얼마 뒤 우리는 발걸음을 돌려 청학동 수련장으로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막상 청학동 수련장으로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편하고 쾌적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공수와 예절도 배우고 힘차게 떡을 만들고 그러다보니 저녁은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우리 엄마께서는 너무 맛있다고 벌써 몇 판째 먹고 계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여기 밥은 너무 맛있기 때문에 계속 먹었습니다. 어드레 저녁 이 깊어

졌습니다. 이제 자야겠구나 싶었는데 아직 할 게 남았습니다. 한자강의, 장기자랑, 발표회 가 남았던 것이었습니다. 먼저 한자강의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무척 잠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끈끈한 정신력으로 잠은 들지 않고 들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들은 사람에게는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정신 차리고 듣고 있었는데 나중에 결국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로……. 열심히 하였는데 결국 선물을 못 받았지만 이번에는 장기자랑에서 잘해가지고 꼭! 선물을 받아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우리 조는 올챙이와 개구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하지만 이런 시시한 것으로 절대적으로 우승은 못하겠구나. 했는데 우리조가 우승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우승 비결은 우리조의 춤을 춘 아이들 때문에 개성이 있어서 뽑힌 거 같습니다. 우리는 상인 빼빼 로를 야금야금 먹은 다음에 발표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체험하였던 것을 써서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의 차례가 지난 뒤 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발표하였습니다. 내스스로도 만족할 만큼 하여서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남긴 뒤 강당에서 할일이 모두 끝나서 이제 자야할 시간입니다. 조금 시끄럽긴 했지만 잠은 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곤한 하루가 또 지난 뒤 드디어 즐겁고도 즐거웠던 지리산 대탐사의 마지막 코스 하늘나리 마을이 남았습니다. 잠이 안풀린체로 버스를 타며 하늘나리 마을로 가였습니다. 그곳에서 초를 만들 것 인데 벌집으로 만든 천연 초를 만들 거라 하셨습니다. 또 기대되는 마음으로 밀 납을 녹여서 액체를 만든 다음에는 심을 넣어 초를 만들었습니다. 예쁜 모양은 아니 이었지만, 자신이 만들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물과 어제 발표한 것을 체험에서 상을 주는 시간 이었는데 제가 발표회에서 우수상을 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수 조는 비록 우리조가 못하였지만 다른 조가 뒀는데 에 축하를 해주었고 이제 기다리던 2박3일의 탐사가 끝나고 집으로 가야할 시간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국민회간에 내릴 때면 시간은 너무나도 빨 리간 것 같습니다. 즐거웠던 지리산 탐사를 끝내고 집으로 왔을 때면 추억과 기쁜 마음만 남아 있습니다. 주말에 항상 집에만 틀여막혀 있던 내가 지리산 대탐사는 새로운 추억을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리산 생태문화 탐사를 다녀와서

이윤종(곡성 중앙초등학교 5학년)

저는 지리산 생태문화 탐사 첫날을 위해 과자와 간식거리를 잔뜩 샀습니다. 저는 두근두근 가슴이 뛰어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평소보다 빨리 일어나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군민회관에서 출발하여 첫 번째로 간 곳은 남계서원입니다. 남계서원은 선비문화의 문화재입니다. 떠 남계서원 입구에 홍살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의 의미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문화재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홍살문을 보고도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홍살문 옆에 하마비라는 비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왜 있을까하고 의심은 갔지만 그곳부터서는 말에서 내려 걸어 들어가라는 의미가 있어 그만큼 신성한 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상림, 실상사, 허브마을, 화엄사, 삼성궁, 등 여러 곳의 문화재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두 곳이었습니다. 한 곳은 삼성궁입니다. 왜냐하면 아지트 같기도 하면, 우리는 배달민족이라는 뜻과 우리가 그렇게 부리는 까닭을 배웠습니다. 저는 삼성궁이 그냥 문화재 인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조상들에 터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 곳은 청학동 서당입니다. 우리는 큰절 하는 법도 배우고 예절도 배웠습니다. 그밖에 도 널뛰기, 인절미 만들기, 투호, 활쏘기 등 여러 가지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중 인절미는 설탕이 없어 단맛은 없었지만 건강에 좋은 것 이라고 생각하고 맛있게 먹었고 그리고 투호에서 두개나 넣어서 기분이 좋았다. 밤늦게까지 장기자랑도하고 체험발표를 하면서 즐거운 날을 보냈다. 정말 즐거운 지리산 생태문화 탐사였습니다. 다음 기회에도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리산이 포근한 고향처럼 느껴져 고향에 대한 시를 써보았다.

-고향 떠나던 날-

고향 떠나던 날
고향이 손짓 했지요

한번만 한번만 더 봐
한번이라도 더 찾아오라고

잊어버리지 말고
꼭 찾아오라고

잊어버리지 말고
꼭 찾아오라고

우리고향 느티나무도
출렁이는 섬진강도
잊지 말라고 손짓합니다.



지리산 답사를 다녀와서……

최향화(곡성문화원 4모듬장)

11월24일 아침 2박 3일 동안 문화원 주최 하에 곡성군 관내의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제2회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의 체험 행사에 모듬장 자격으로 참여 하게 되었다.

하얀 구름과 하얀 해살을 내뿜는 태양아래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남계서원이었다.

후학들이 정여찬 선생사후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영주의 소수서원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조선 명조 7년(1552년)에 세워진 유서 깊은 사액 서원 이다. 남계서원은 흥성대원군이 단행한 서원 철폐 때 도 남은 47개 서원 중하나로 지금 까지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다. 서원에 들어서면 우선 마당에 아담하게 들어선 연못이 인상 적이 었다. 생전에 연꽃을 좋아했던 정여찬 선생님의 흔적인 것 같다. 서원 오른쪽에 이를 증명하는 愛蓮軒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옆에는 養正齋 라는 건물이 있다. 후학을 바르게 기르겠다는 그의 뜻이 읽힌다.

그다음 도착한 곳은 남계서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상림이었다.

상림은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통일 신라 말 때 당시 함양태수를 지내던 최치원이 방수와 방풍을 위하여

최초로 만든 인공림이라고 한다. 어느덧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있었다. 낙엽이 어연간 겨울을 재촉하고 있는 듯 하였다. 폭신한 낙엽 길을 걷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에 산책로를 끼고 도랑에서는 시원함을 더하는 청명한 물소리까지...

세 번째로 간 곳은 천년사할 실상사였다.

대부분은 깊은 산중에 자리 잡고 있는데 비해 지리산 자락의 실상사는 들판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이 특이하다. 이 절에는 “일본이 흥하면 실상사가 망하고 일본이 망하면 실상사가 흥 한다”는 구전이 있는데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실상사 경내의 보광전 안에 있는 범종에 일본 열도의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스님들이 예불할 때마다 종에 그려진 일본열도를 두들겨 치고 있다고 한다.

화엄사에 도착하였을 땐 어느새 검푸른 색으로 날이 어두워 저가고 있었다. 화엄사에는 국보 4점, 보물 5점, 천연기념물 1점 지방문화재 2점등 많은 문화재와 20여동의 부속건물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것으로 하루답사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섰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차가운 겨울바람과 더불어 도착한곳은 지리산 깊은 골짜기 청학동 초입에 있는 민족의 성조인 환인, 환웅, 단군을 모신 배달민족성전 삼성궁 이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있을 수 없고, 근원 없는 강물이 있을 수 없듯이 인류의 역사가 있음에 그 거례의 조상이 있는 것은 하늘이 정한 아름다운 진리가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청학동에 도착하여 전통체험을 하였다. 인절미, 널뛰기, 투호, 활쏘기

다음으론 훈장님의 추구 강의에 이에 늦은 시간 까지 아이들의 이틀 동안 듣고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누구다 할 것 없이 다 너무 잘 하고 있었다. 발표회가 끝나고 간사님과 함께 채점을 하였는데 최우수상과 우수상 한명이 우리 모둠에서 나온 것이다. 바로 달려가서 상 탄 애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기쁜 마음으로 또 하루 일정을 마치고 청학동 에서 1박을 하였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다른 때보다 마음이 더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 모둠에서 최우수상이 나와서 일까? 곧 집에 도착해 3일 동안 헤어져 있었던 두 아이를 만날 수 있어서 일까? 기쁨 반, 아쉬움 반, 짐을 챙겨서 버스에 몸을 싣고 마지막 코스인 곡성 상한마을에 위치한 7,8월에 하늘나리 꽃이 많이 핀다하여 지어진 하늘나리 마을로 향했다. 이 곳에 도착해서는 밀납초 만들기 체험을 마치고 점심 먹으러 나섰을 때 우리의 이별을 아쉬워 하듯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비록 우리아이들이 어려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꼭 우리 두 아이를 데리고 와야 겠다 는 생각을 해본다.

짧고도 긴 2박 3일 동안 함께 했던 학생, 학부모님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 하세요~~. 그리고 잘 따라 주신 우리 4조 모듬원 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제2회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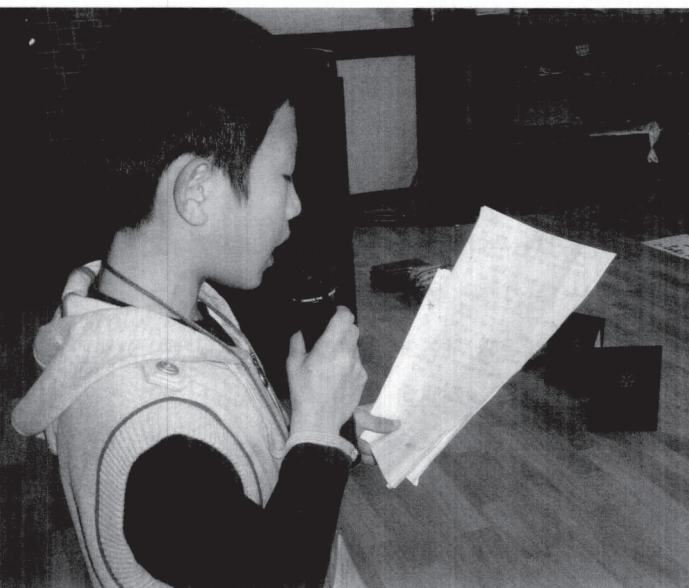
김순희(곡성 고달초등학교 이지현, 윤호 어머니)

저녁잠을 자는중 마는등 준비를 하고 설레는 마음을 한껏 더구나 2박을 아이들과 함께 같이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되어 너무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출발을 하였기에 일찍 서둘러서 곡성 문화원 7시 50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도착을 하였는데 여럿이 아는 얼굴 또한 아이들의 친한 친구들이 보여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8시가 조금 지나 모듬별 체크를 하고난 후 곡성문화원을 출발하여 함양군 수동면에 위치한 김종직 스승이셨으며 정여창 선생님을 배양한 남계서원에 도착했습니다. 1868년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3천개중 47개만 남았다고 하였으나 그중 남아있는 서원이라고 하였으며 한서원을 움직이는 수는 200여명 정도였으며 400여명 정도가 배웠으며 아직까지 잘 보존되어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치원 선생님께서 방수, 방풍을 막기위해 만드신 상림에 도착했습니다. 6만평 정도의 아주 넓은 상림 숲이였으며 48과 116종의 나무와 심어져 있다고 안내해 주셨으며 낙엽의 바스락거림과 시냇물의 흐름소리에 다시한번 자연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또다시 모듬별 조를 이루어 작은아이의 손을 꼭 잡고 최초의 선종 사찰인 실상사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바로 보이는 양쪽에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었다는 쌍탑이 보였으며 쌍탑의 모형을 본떠서 만든게 대웅전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안내하신 선생님께서 탑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어 새로운 것을 다시한번 알게되어 넘 뿌듯했습니다. 또한 안쪽에는 1300년전에 만들었다는철불 부처님상이 땅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거대함에 다시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거대함 속엔 강인함과 인자함 또한 애릿한 눈이 일본 후지산을 주시하고 있다고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셨는데 다시한번 일본을 생각하게 아니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웬지 일본의 흐름을 뒤로한채 다시 출발하여 또다음 도착한곳은 삼성당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조인 환인, 환웅, 단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며 배달민족에 대해 한층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배달민족 : 밝다의 의미이고 즉, 해또는 태양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 대한은 큰 밝음의 땅 즉, 대우주를 의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소우주를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한민족이라는 자심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을 알고 배달을 알면 내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삼성당안은 밝음과 자연의 위치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는 모든 주의의 구조물이 나의 가슴을 확 트이게 하였으며 자연과의 그 어떤 조화 아니 자연의 멋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경이로웠습니다. 또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또다시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청학동 할머니와 한컷 사진을 찍은 뒤 최익현 선생님의 수제자인 최재학 선생님을 비롯 마을사람들과 함께 세웠다는 청학동 서당 현재 훈장님이신 김인철 훈장님을

뵈러 내려왔습니다. 아이들과 어린이 따로 예절교육을 받던 뒤 공수라는 예절 인사법등 다양하게 훈장어르신의 말씀을 들은뒤 다시한번 엄마의 위치를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공부는 하루를 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하지 않으면 친구가 알고 3일을 하지 않으면 시험지가 안다고 합니다.” 청학동에서의 인절미 떡매치기, 활쏘기, 투호놀이 등 하나도 재미있지 않은 놀이가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 훈장 어르신의 가르침도 듣고 아이의 피곤함과 나의 피곤함을 잊은채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상쾌한 아침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다시 하늘나리 마을에 도착하기전 “왜 하늘나리 마을이라 했을까” 많이 궁금했습니다. 굵이굵이돌아 하늘나리 마을에 도착하여 안내하신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궁금증은 해소되었습니다. 하늘나리 : 7,8월에 피는 꽃이며 고산지대에만 산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리 마을에 도착하여 아이들의 재잘거림과 함께 밀랍초 만들기를 하였으며 그 신기함에 아이들과 꼭 만덜어 보고 싶어 선생님께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졸랐더니 밀랍초에 작은 글씨로 적어주었습니다. 안내하신 선생님께서는 “춧불은 켜는날”을 알려 주었으며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8시~10시까지라고 알려주셨기에 꼭 한번 아이들과 함께 실천해 보고 싶었습니다. (소원도 빌고 아이들과 잔잔한 대화를 위해서) 밝은 서서히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애들과 함께 마무리 할 시간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 정말 서운했습니다. 모처럼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체험을 해주신 곡성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한번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아 안녕!

김소영(곡성 입면초등학교 5학년 1반)

나는 지리산 체험 때문에 잠도 설치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 비가 오나 창문도 열어보고, 여느 때보다 아빠랑 기쁘게 인사하여, 발걸음도 가볍게 군민회간으로 갔다. 서로 만나서 인사도 하고, 조도 정하였는데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조금 낯선 사람도 있었는데 같은 조가 되어서 이야기도 하여 많이 친해졌다.

모둠장님도 다 친절하시고, 나를 반겨주어 나도 반갑고 기뻐다.

설레이며 버스를 타고, 남계서원, 상림, 실상사, 허브마을, 화엄사 등을 갔는데 그 중에서 상림, 실상사, 허브마을이 인상깊었다. 상림은 1000년 된 나무도 있었고, 엄마, 친구와 낙엽을 밟을 때에도 기분이 좋았다. 연못에 식물들도 무척 많아서 놀랍기도 하였고, 함양은 물레방아 상징이라서 물레방아도 보았다. 그 다음 실상사에서 탭에 대해서도 배워서 새로운 사실도 알았다. 그중 탭은 홀수로만 되어 있다는게 제일 새로웠다. 그런데 그보다는 해우소가 인상깊었다. 해우소는 화장실이라는 말인데 처음 알았고, 직접 들어가 보니 옛날 화장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허브마을에서는 허브비누도 재료들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쉬웠고, 색깔도 이쁘고, 향기도 좋았다. 나는 사실 무엇보다도 호텔이 제일 신났다. 친구와도 같은 방이 되고, 전화도 하고, 밥도 맛있게 먹었다. 잠자기 전에는 집에 있는 아빠가 생각났다.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맛있게 밥을 먹어 기운을 내고, 삼성궁, 청학동에 갔다. 삼성궁은 정말 올라가기 힘들었는데 경치가 무척 좋았고, 삼성궁의 뜻이랑 여러 가지의 정보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청학동에서는 제일 인상깊은 것들이 많았는데, 공수인사랑 큰절을 배웠다.

차례대로 순서도 배우고, 인사와 절에 대해 좀 더 아는 시간이 되었으니, 평소에 대충하던 인사를 제대로 예쁘게 공수인사도 잘 해야겠다고 느꼈다. 그 다음 요즘 별로 하지 못했던 투호놀이, 널뛰기 등을 하여서 재미있었고, 옛날로 돌아간 느낌도 들었다.

체험 중 인절미 만드는게 제일 재미있었다. 2인 1조씩 방아를 열심히 쪼갠데 힘들어서 얼굴도 빨개졌지만 우리 모두가 직접 만든거라서 정말 맛있었다. 활쏘기도 했는데 재미있었지만 볼 때는 무척 쉽게 보였는데 해보니 볼 때와는 달리 어려웠다. 장기자랑에도 참가하여 재미있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 그리고 훈장님께 예절도 배웠는데 힘들었지만 좋은 시간이었다. 상도 받으면 좋지만 과정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우리 조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는데 상도 받아서 무척 좋았다. 활동할때는 힘들어서 빨리 끝내고 싶었지만 집에 갈 시간이 되니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제부터 선생님과 부모님 말씀을 잘들으며, 효도도 잘해야겠다. 같이 참석해 주신 엄마 아빠들과 선생님, 그리고 우리 엄마가 무척 고맙고, 지리산에서 아주 좋은 추억이었고, 2박 3일 동안은 지리산이 내 친구였다. 지리산아 고마워, 안녕!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 보고서

박병준(곡성 중앙초등학교 5학년 1반)

무엇 이 라도 더 많이 배우고 싶고 호기심 많은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문화원 여러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설레이는 마음과 부푼 기대감을 버스에 싣고 출발하여 먼저 도착한 곳은 함양에 있는 남계서원, 정 여창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정말 조상의 냄새가 물씬 풍겨오든 것 같아서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상림, 상림은 방풍과방수를 위해 최 치원 선생님께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나뭇잎을 밟으며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어다니 정말 인상 깊었지만 형과 아빠도 계셨다면 더욱 좋았을 거라는 생각에 아쉽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론 내 발아래서 어쩔 수 없이 밟히고만 있는 낙엽들이 불쌍하였습니다.

다음 코스는 실상사 길으로 보기엔 그리 커 보이는 사찰은 아니었지만 국보나 보물이 아주 많은 사찰이기에 자랑스럽기만 했습니다. 힘든 일제시대에도 이렇게 문화재를 잘 지키신 조상님들이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브마을에서는 예쁜 비누는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허브나무를 볼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허브마을을 찾아 갔나봅니다.

내가 처음으로 간 화엄사는 어둠 때문에 아쉬움만 남긴 채 돌아와야 했습니다.

다음날은 버스에 몸을 싣고 삼성 궁으로 출발, 멈출 줄 모르는 멀미로 버스는 아수라장 이었으나 산의 멋진 단풍을 보며다니 조금은 괜찮았습니다. 삼성 궁에 도착해보니 모든 것이 신비롭고 새로운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청학 동에서는 혼사님께 어려운 예절 교육을 배웠고 옛날에는 이렇게 어렵게 인사를 했다는 것이 불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널뛰기, 인절미 만들기를 하고나니 추웠던 기운이 멀리 사라지고 멀미로 힘들었던 몸 상태도 아주 멀리 가버렸습니다. 청학 동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아름다운 단풍들로 장관을 이루고 있었고,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훈장 선생님과 공부 할 때는 예절을 알면 효자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꼭 효자가 될 것 입니다.

떠날때는 항상 아쉽기만 합니다. 훈장님과 혼사님의 모습을 뒤로 한채 도착한곳은 곡성 하늘나리 마을, 보슬보슬 비가 내려서 하지 못한 체험도 있었지만 곡성에 오니 마음 까지 편해진걸 보니 역시 내가 살던 곳이 좋은가 봅니다.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처음 계획에서 바뀌어버린 남원의 혼 불 박물관 체험은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다음에도 이런 좋은 기회가 생기면 꼭 참여하여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을 위해 고생하신 문화원 선생님들과 여러 모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선현숙(곡성 중앙초등학교 5학년1반 박병준 어머니)

아이와 함께 집을 떠날 2박 3일의 여정을 생각하니 집안도 걱정이 되었다. 우리 집엔 여자의 손길은 나
뿐 이라서.....

한편으론 언제 이런 기회가 내게 올까! 정말 좋은 기회니 만큼 알차게 보내고 돌아와야지 하는 맘으로 집
을 나섰다.

들뜬 맘으로 곡성을 출발하여 함양 남계서원, 상림, 실상사, 허브마을, 구례 화엄사 여기까지 하루 일정
이었다.

상림에 들렀을 땐 정말 이루 말 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왔다.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작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겐 아름답기만 한곳이 상림이었다. 남편과 큰아이
가 보고 싶었다.

같이 있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한 시간이 되었지만, 맘속에 가득 담아 집에 돌아가면 잘 얘기 해 주
리가 맘먹고 아름다운 풍경들을 열심히 머릿속에 가득 담았다.

실상사는 작년에도 들렸었지만 추워서 인지 쓸쓸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맘이 불편했다. 좀더 잘 보존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학 동으로 가는 길은 구불구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결국 내 아들이 실례를 해서, 맘이 편치 않
았지만 높은 하늘과, 무엇보다도 비교 할 수없는 산들의 단풍이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고 있는걸 보니 불편
함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아이들이 하는 모든 놀이를 볼 땐 나도 같이 동심의 세계에 빠져 있었고, 아들 녀석이 즐거워하는 걸 보
니 내 맘도 아주 편했다. 다행히 마지막 날 집으로 돌아오는 날 비가 내려서 정말 다행이었다. 하지만 비
때문에 체험 못한 것도 있었기에 못내 아쉬웠지만, 하늘나리에서는 인심이 푸짐한 어머니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2박 3일의 지리산 탐험을 마치고 정들었던 아이들과 어머니들, 헤어지려니 섭섭
하기만 했지만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아쉬운 작별을 해야했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운 너무 좋고 행복한 시간들 이었다.

고생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정말 감사하고, 값진 시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리산의 체험을 다녀와서

이서정(곡성 입면초등학교 4학년)

저는 아침 집에서 7시 30분에 나가서 택시를 타고 곡성 군민회관에 갔습니다.

가서 가방도 받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버스를 탔습니다.

맨 처음에는 남계서원에 갔습니다. 남계서원은 멸종 7년 에 개암강이이 문헌공정여장을 기리고 후학을 기르기 위해 백운동

서원을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창건한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유재란때 소실된 것을 광해군 2년에 재진하였습니다.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시 남계둔 47개의 서원 중 하나입니다.

서원 입구에는 하마비가 있고 서원내에는 일두 선생 문집 책판과 개암 선생 문집 책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삼림입니다. 삼림은 통일 신라 말에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림이며 봄의 신록, 여름의 독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 등 사철을 통하여 그 절경을 맛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삼림의 숲속에 조성되어 있는 오솔길은 연인들과 가족들의 대화와 사랑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쉽게 접할수 있었습니다. 삼림에는 40여종의 낙엽관목등 116종의 나무가 1.6km의 독을 따라 80-200m 폭으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허브마로로 비누를 만들러 갔습니다.

가서 비누도 만들고 국장님께서 시 낭송이나, 발표를 애들 에게 하라고 해서 웃긴이야기도 있었고 참 즐거웠던것 같습니다.

이제 장기자랑과 발표가 끝나니 비누가 다 굳어져 비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버스를 탈려고 하니까 제가 엄마에게 여기까지 왔으니 기념품을 사서 이모들과 아빠에게 선물을 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도 사고 사진도 많이 찍고 구경도 했습니다.

이제 또 버스를 타고 제일 마지막 코스인 화엄사에 갔습니다.

화엄사는 날이 어두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설명을 간단히 듣고 한바퀴 돈다음 버스에 올라 타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많은 곳을 들러 설명도 듣고 체험을 하니 너무 피곤 했습니다.

엄마와 단 둘이서 방을 주어 처음으로 엄마와 여행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다음날을 위해 피곤해서 일찍 잘려고 했는데 언니들과 노느라고 일찍 안자고 장난도 치면서 늦게까지 깰 깰대며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못일어날 시간에 눈을 비비면서 밥도 먹고 청학동을 가기 위해 짐을

챙기고 우리가 어질러 는 이부자리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서 나오면서 모듬끼리 단체 사진도 찍고 산이라 공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삼성궁에 가서 삼성궁 배달민족 성전 청학신원의 삼성궁이라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니 너무 넓어서 입이 딱 벌어져 앞 사람을 놓치면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엄마와 소영언니와 같이 다녔습니다. 옛날 물건들도 보고 사진도 찍고 기념품도 사고 꼬불꼬불한 산을 내려와 버스를 타고 청학동에 가서 예절교육도 받고 인절미도 만들고 활쏘기, 널뛰기, 등등 여러가지를 체험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접해본거라 모든게 다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사자소학도 배우고 발표를 해야 했습니다. 정말로 발표를 하려니 머리가 조금 아팠습니다. 그런데 공책도 보지말고 자기가 생각 해온것을 보지 말고 3분 동안 하라고 하니 조금 아팠던 머리가 더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잘해볼려고 앞에 나갔는데 앞에 나가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간단하게 제 소개만 하고 쑥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정말 칭피했습니다. 이것을 경험삼아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은 초를 만들기 위해 전화도 터지지 않는 안전히 산골짜기 하늘 나리 마을로 가서 초를 만들고 한지 종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종이를 만들면 비가 와서 더 늦어질것 같아서 못만들고 폐소식을 했습니다. 4모듬 대표로 연습장을 받았고 우리 모듬이 제일 단합이 잘 났다고 모듬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운이었습니다.

온래는 3모듬이 잘해서 받을뻔 했는데 사고가 생기는 바람에 대신 우리가 받아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참 2박 3일 동안 좋은 경험도 하고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 말씀 잘듣고 선생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을 메모를 잘 할것이며 여기에 온 언니들, 오빠들, 친구들 모두 만나서 반가웠고 참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국장님과 모듬장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늦게 보내서 죄송하구요 감사합니다.



지리산 답사

김영숙(곡성 입면초등학교 4학년 이서정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서정 엄마 김영숙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아들을 따라 문화 탐사를 갔다왔고 올해는 우리 딸과 같이 문화 탐사를 갔다왔다.

어느 때와 같이 어린애처럼 가기 전날에는 설레는 마음 반과 기대되는 마음이 섞여 잠이 오질 않았다.

다른 때와 다르게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2박 3일동안 비우기 때문에 반찬을 해놓고 아침부터 부지런을 떨었다.

모든 여자들은 집을 비우면 그런 해방감이라고 할까? 너무 낱아갈듯 기분이 너무 좋았다.(너무 속 보인가요?)

8시까지 군민회관에 모였다.

작년에 본 반가운 얼굴들도 보였고 처음보는 엄마들도 있었다.

우리 입면 초에서 소영이와 우리딸 서정이는 4모듬이 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팀웍이 너무 잘되고 엄마들도 튀는 사람없이 순수한 엄마들 이었다.

설레고 들뜬 마음을 담고 2호차에 몸을 실었다.

꼭 수학여행 가는 기분이라고 할까? 첫날에 둘러보는 체험하는 곳은 남계서원, 삼림, 실상사, 허브마을, 화엄사, 그 다음 제일 기대 되는 호텔....

첫날에 기억이 남고 우리가 직접 비누를 만들고 사용하는 비누를 직접 우리들이 만드니 너무 신기했다.

허브 차가 없어 케모마일 이라는 차를 주셨다. 향은 별로 없었지만 맛은 부드러운면서도 순했다. 꼭 나를 닮은 차였다.

집에서 떨어져 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딸 아이의 반응은 너무 행복해 하는 것 같았다.

또 한편으로는 집에 계시는 아빠와 오빠는 밥은 챙겨 드셨는가? 걱정이 되서 아빠한테 전화를 여러번 거는 것 같았다.

이런 모습들이 너무 예쁘게 보였다.

자연에 벗삼아 나도 집을 떠나 많은 생각을 했다.

우리 아들 대근이에 대해, 우리딸 서정이에 대해, 또 사랑하는 우리 서방님에 대해

가끔씩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자면서 나를 위해 돌아볼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았던것 같았다.

둘째날에는 청학동을 가기 위해 일찍 서둘렀다.

삼성궁도 갔었고 훈장님의 말씀도 들으면서 공수 인사도 배웠다.

우리 아들과 갔던 청학동 수련원 이었다. 저녁에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

우리딸 서정이는 발표가 부담이 됐었는데 다른 애들은 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날부터 연습장에 발표 내용을 쓰고

있는것 같았다.

기특한 우리 딸, 어리다고 생각만 했었는데 이런것 보니까 의젓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느새 생각이 바뀔 정도로 커져 있었던 것 같았다.

작년에는 1회 지리산 문화 탐사라 조금은 프로그램이 미흡한 점이 조금 엇보였는데 올해는 너무 짜여진 프로그램이 내 생각에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았다.

여기 곡성 관내에 살아도 이렇게 체험을 다닌다는 것은 힘든데 이런 자리가 있음으로 해서 아이들과 생각이 같아지고 더 친해질수 있는 자리인것 같았다.

끝으로 문화원 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무뎀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서 인솔하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닐텐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더욱더 힘들어 하는 국장님을 뵈니 안스러워지기까지 했습니다. 힘들어도 내색도 안내시고 가는 곳 마다 설명도 아끼지 않고 목이 새도록 열성적으로 가르키시는 국장님 비롯하여 문화원 식구들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우리 딸과 같이 참석 하고 싶습니다. 더 성숙된 우리 딸 서정이와 내년엔 꼭 뵈실수 있도록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 생태체험을 다녀와서

이규녀(곡성 삼기초등학교 5학년 정희광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삼기초등학교 5학년 정희광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일손이 많이 필요한 바쁜 가을철이라 무척 힘든 시기였지만, 박석규 선생님의 추천과, 아이 아버지의 배려로 집안일을 잠시 뒤로한 채 지리산 생태체험에 나섰습니다.

여행에 함께 한 일들과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우리 모두는 같은 곡성국민이었기에 쉽게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버스 여행후 함양에 도착하여 삼림휴양림에 들어섰을 때, 약간의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길이 별로 좋지 않아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네와 별반 다르지 않네라고 생각하며 휴양림으로 들어섰는데, 처음의 실망을 곧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40여종의 낙엽 관목과 116종의 나무가 펼치는 세상은 기억속에 강렬히 남았고, 다시금 방문하고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이 휴양림의 역사적인 배경을 듣고 나니 더욱 이 숲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통일신라 말에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림이면서 홍수와 태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 숲이 실용성까지 갖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찾은 곳은 실상사였습니다. 통일 신라 말에 만들어 진 이 절은 깊은 산 속에 자리 잡은 다른 절들과 달리 넓은 평야근처에 자리잡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보물 37호인 실상사 삼층석탑과 보물 35호인 실상사 석등 같은 유구한 문화재들이 자리 잡고 있어 오래된 역사의 흔적이 눈앞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다음 찾은 곳은 춘향 허브마을이었습니다. 허브를 이용해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허브를 이용해서 만든 여러 공예품도 하나쯤 구입하고픈 마음도 들었습니다.

허브의 은은한 향을 남기고 도착한 곳은 구례 화엄사였습니다. 유명한 사찰이고 전에도 몇 번 찾아본 적이 있는 절이지만,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이 절은 방문할 때마다 다른 느낌을 선사하는 것 같아, 이게 바로 자연에 신비구나 하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544년에 세워져 1500년 가량의 세월을 한 자리에 서있던 이곳 태안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화엄사 각황전의 웅장한 풍광이었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문화재들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라 옛사람들의 숨소리가 그래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유명한 청학동이었습니다. 향교와 향사, 예절 교육, 그리고 훌륭한 위인 면암 최익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사와 예절에 대한 진취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리산의 맑은 자연과 함께 숨쉬며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할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정숙희(곡성문화원 5모둠장)

문화원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지리산생태문화 탐험이 작년 이어 올해에도 이어졌다. 이박삼일로 초등학생과 학부모 위주의 탐험이라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작년에는 미리 포기를 했는데 여행을 다녀보면 볼수록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해마다 달라짐을 느껴 올해에는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문화원 사무국장님께 미리 부탁을 드려 인솔자 자격으로 참가 하게 되었다.

아침도 먹는 등 마는 등 바쁘게 서둘러 도착한 구민회관에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몇 분에 불과 하지만 아버님들의 참석 이었다.

우리가 이번 지리산 탐험은 선비문화, 사찰문화, 서당문화 자연문화 체험문화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짜여있었다.

처음도착한곳은 선비문화의 한 일면을 볼 수 있는 함양군 수동면에 있는 남계서원에 도착하였다 조선시대학자인 정여창 선생을 모신 사당이다.

사당은 처음에는 제사만 지내는 기능으로 사용해 오다가 1542년 (중종37) 경상도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관내 순흥 백운동에 고려 유교의 중흥자 안향(安珦)의 옛날집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 사우(祠宇)를 세워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모아 가르쳤다. 이것이 사(祠)와 제(齋)를 겸비한 최초의 서원으로 백운동 서원(白雲洞書院)이다.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 다음으로 세워진 남계서원은 동제와 서제 강당 그리고 사당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유교사상이 많이 퇴색되어진 요즘 서원을 찾음으로써 충효 사상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아이들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이번 탐험을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코스인 사찰문화의 한 부분인 실상사는 천년 역사의 고찰인 점과 구산선문을 함께 개창한 점 등은 우리고장 태안사와도 연관이 있는 절이었다.

실상사는 우리 고장 태안사와 역사를 같이 하는 곳이기에 많이 가보고 싶었던 곳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막상 도착하고 보니 실망이 많이 앞섰다.

천년 고찰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절도 초라 하니 많이 작았고 주위환경이나 절은 많이 퇴색되어 웅장함보다는 많이 왜소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이 절에는 “일본이 흥하면 실상사가 망하고 일본이 망하면 실상사가 흥한다”는 구전이 있는데 이는 천왕봉 아래 법계사에서도 전해지고 있어 흥미를 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실상사 경내의 보광전 안에 있는 범종에 일본 열도의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스님들이 예불할 때마다 종에 그려진 일본 열도를 두들겨 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와 실상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한다는 구전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귀농학교가 절 안에 있어 친환경으로 만든 화장실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냄새는 조금 나지만 자기가 불일을 본 것을 왕겨로 덮어 버리는 옛날식 화장실은 아이들에게는 마냥 신기한 모양이었다 친환경 농법이나 무 농약 또는 저 농약으로 가는 요즘 자연 친화적인 화장실은 아이들에게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체험문화인 운봉 허브마을로 이동했다.

아담하고 조용한 허브마을은 철이 지나서 허브의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친절하신 사무장님이나 손님을 맞는 마을 아주머니들의 따뜻한 환대에 비누를 만드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갔다. 짜여진 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시려는 곡성 문화원 사무국장님의 노력 덕분에 해질녘 화엄사의 웅장한 모습은 세번째 찾은 화엄사이지만 다시금 고개가 숙여지는 장관이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국장님의 설명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 이층인 각황전과 일층의 대웅전이 같이 보이는 신비한 모습은 나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바쁘고 피곤한 하루의 일정이 지나고 숙소에서의 첫날밤은 핵가족시대이지만 엄마와 단둘이 또는 아빠와

단들이 잠을 자보지 않은 참가자들에게의 숙소 배정은, 이 탐험에 참가한 많은 부모님에게도 좋은 추억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날 밤은 아들이나 딸이 아빠나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또는 아빠나 엄마가 아들에게 딸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 해주었을 밤이었다.

아침밥을 맛있게 먹고 꼬불꼬불한 지리산 청학동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 고달팠으나, 막상 도착해보니 돌담길이나 전경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삼성궁 입구에서 징소리와 함께 나타난 도인께 우리 단군조선의 역사를 듣고, 삼성궁을 둘러 보고 청학동 서당으로 출발하였다.

훈장님의 환영인사와 함께 시작한 전통문화 체험교육은 참가한 부모님이나 학생 인솔 지도교사들에게도 무척이나 재미있고 즐거운 체험이었다.

아주 어렸을적 명절때나 해보았던 널뛰기나 투호 활쏘기 인절미 만들기 체험은 또 다른 체험여행의 묘미였다.

훈장님께서 아이들에게는 부모님께 인사하는 법이나 부모님께 가정의 소중함이나 자녀 지도등을 교육받으며 아쉬운 마지막 밤은 저물어갔다.

이른 아침을 먹고 곡성으로 출발~~

죽곡에 있는 하늘나리마을에 도착해서 한봉에서 나오는 밀랍 초를 만드는 체험을 하였다.

전기가 나갔을 때 쳐보고 했던 초이지만 새삼 한봉의 밀랍으로 만든 초는 또 다른 재미를 주었다 민박집에서의 점심식사는 한정식 집처럼 푸짐하게 차려 전라도 음식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맛깔스러웠다. 그분들의 따뜻한 인정까지 포함시켜준 점심식사의 꿀은 맛이란!

이박삼일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정은 이렇게 끝났지만 학교공부에 학원공부에 찌들었을 아이들에게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너무 좋았다. 이번 여행은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된 후에도 아주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이다.

시골에 살면서도 아이들은 도시화 되어 가고 있다 디지털의 발달과 문명사회의 발달로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부모와의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좋은 여행이 있어 얼마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었던지는,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더욱 절실히 실감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말로서 하는 교육과 현장에서의 체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가한 부모님 모두 직접 겪었을 것이다.

흥미 본위 위주의 여행이 아닌 참다운 교육의 장을 좀 더 넓힘으로써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 주고 느낄 수 있게 해준 것이 이번 여행의 참된 의미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신 곡성문화원 관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빠지지 않고 참석 해야겠다 문화원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내년에도 참가시켜 주실거죠?

지리산 생태문화체험 2박3일을 다녀와서

오승미(곡성 입면초등학교 3학년 김형은, 5학년 김형인 어머니)

사랑하는 딸들에게...

전날밤에 내일 떠날 짐정리를 해놓고, 아침일찍 산뜻한 공기를 마시면서 아이들과함께 곡성 군민회관으로 향했다. 여러 학부모님들과 인사를 하고 간단히 설명을 듣고 나서 주어진 차량에 올라탔다. 드디어 2박3일에 여정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들뜬마음보다는 먼저 피곤함이 더 앞선마음이 들었지만 두딸들 앞에서 엄마의 다른모습 당당한모습을 보여주고 싶기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했다. 청학동에서 훈장님께서 열심히 강의를 하시는데, 난 너무 몸이 힘들어서 거의 졸다시피 ...애고애고 졸음은 왜이리도 오는지... 여러 가지 이곳저곳 살피면서 두딸들 손잡고 설명을 해주고 싶었는데, 조가 다른이유로 해주지 못한점이 아쉽기만하다. 2박3일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조금 서툰글이나마 두딸들에게 사랑의 멜로디를 전해주고 싶다. 그동안 표현하지 못한것들을 이 작은 글로 인하여 두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고싶다.

사랑하는 형인, 형은 딸들아!

2박3일동안 지리산 이곳저곳을 돌아보면서 참 힘들기도하고, 재미있기도 했을거라고 생각한다. 엄마 역시도 다니면서 우리딸들과 함께 직장다니다는 이유로 여행한번 제대로 가보지도 못한것 같아서 참 미안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다.

늘 학교 갔다오면 다른 엄마들 처럼 반갑게 맞아주지도 못하고, 스스로 알아서 잘해주는 두딸들이기에 참 고맙고 감사하다.

늘 질문이 많은 우리 두딸들인데, 엄마는 다정하게 말도해주지 못했고, 늘 알아서 잘하는데도, 엄마의 욕심때문이였을까? 칭찬도 제대로 해주지 못한것같고...

왜이리도 엄마가 잘못한게 많은건지 모르겠구나?

사랑하는 딸들아!

누구보다도 밝고 초롱한 눈을 가진 형인, 형은아!

언제나 칭찬도 잘해주고, 더많이 안아주고, 더많이 사랑해주고,더많이 웃어주고, 우리 딸들에게 해줄게 이리도 많은데, 엄마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늘 딸들에게 제대로 해준게 없는 엄마인 거 같구나?

때로는 힘들고 지쳐도 내똥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짜증내지 말고, 늘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모습, 늘 긍정적인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눈과, 지혜를 가진 두딸들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언제나처럼 밝고 씩씩하게 자라주고, 건강해주렴.

사랑하는 딸들이!

엄마도 딸들입장에서 늘 생각하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진 모습으로 기다리고, 칭찬에
인색하지 않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련다.

아침마다 우리딸들 투정 조금만 부렸으면 좋겠고, 언니도 동생도 서로 감사안아 주는마음으로 서로 에게
조금만 양보 해주는 착한 딸들이 되어준다면 좋겠구나?

엄마가 해주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막상글로 쓰려고 하니까 참 생각하는것보다는
힘이들구나?

우리 딸들도 정말로 고생했고, 언제나 처럼 웃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로 생각하는 보물 형인, 형은아!

미안하고, 고맙고, 두딸들 엄마가 사랑하는거 알지? 사랑한다

복권기금지원

일시 : 2006. 11.24(금) - 11. 26(일)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

후원: 국무총리복권위원회,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문화원연합회



지리산 생태문화 탐험을 다녀와서..

김형은(곡성 입면초등학교 3학년)

2006년 11월24일 설레는 마음으로 곡성 군민회관을 출발했다.

도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아는 사람도 몇 명 있었고, 모르는 사람은 아주 많이 있었다. 모르는 사람은 그곳의 90%라고 볼 수 있다.

나는 5조가 되었다. 언니들과 떨어져서 조금 기분이 섭섭했지만 그래도 기뻐다.

그중 제일 기뻐던것은, 학교를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남계서원이었다. 남계서원에서는 설명만 들은 것 같다.. 곳곳 많은곳을 갔다.

그래서 기억이 않나는 것 같다.. 나는 그중 허브마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친구의중요함을 알게되었고, 만약 이런 기회가 또 생긴다면..오고싶은마음 반, 가고싶지 않는맘 반이 있을것같다. 그리고 친구줄꺼, 선생님 드릴꺼를 만들었는데, 웬지 친구생각이 났다. 그리고 양초를 만들었는데..

꿀집과 같이 먹고나서 남은 꿀 찌꺼기를 이용하여 밀랍을 만드는데..

그 밀랍이 굉장히 귀하다고 한다. 그 밀랍을 이용하여서 양초를 만들었는데 참 재미있었다. 될 수있으면 참가해보고 싶다.

다음 기회에는 더 많이 자세히 설명을 듣고 더 재미나게 경험을 해서 친구들앞에서도 발표도 잘해보고 싶다.



지리산 생태문화 탐사를 하고

나찬웅(곡성 고달초등학교 4학년 1반)

저는 고달초등학교에서 다니는 나찬웅입니다. 선생님의 권유로 지리산 대탐사를 참가하게 되었는데 오기 전 어떤 탐사일지 참 궁금하였습니다.

첫째 날 남계서원에 갔습니다. 서원은 모든 서원이 첼페령이 내려질 때에 첼페를 안 한 서원중에 하나입니다.

서원의 마당 한 가운데에는 연못이 2개 있고 연꽃이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 정여창 선생님이 연꽃을 좋아하셔서 심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연꽃은 다 시들어져 있었지만 선생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관 뒤에 있는 서원안 글방으로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실망을 뒤로 하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버스를 타고 삼림숲으로 갔습니다. 삼림숲은 최치원 선생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곳은 비만 오면 마을이 물에 잠겨서 그걸 막기 위해 최치원 선생님이 제방을 쌓고 그 위에 숲을 만들었습니다. 삼림숲 속에는 공원같이 조성되어 있고, 세계의 수종 식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예뻐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도착한 곳은 실상사였습니다. 실상사에는 1300년 전에 만들어진 백제 시대 때의 철불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기술로도 안되는 철불을 그때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철불을 본 뒤 옛날 변소 체험을 하였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코를 찌르는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체험을 한 뒤 밑을 보니까 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고 비료로 쓴다고 하였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춘향 허브 마을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허브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허브 비누를 만들 때에 흘러내릴까봐 조심 조심 부었습니다. 참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허브를 가지고 어떻게 비누를 만드나 하고 생각하였는데, 허브마을에서 직접 체험을 하고 만든 후에 알았습니다.

화엄사에는 옛날 유적을 볼 수가 있었고, 숨어있는 과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향에 따라 어느 곳에서는 각광전보다 대웅전이 작고, 어느 곳에서는 대웅전이랑 각광전이 비슷비슷하였습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 보여지는 모습이 달라 조상들의 지혜가 놀랍다는 것을 느끼며 우리 조상이 참 영리했구나,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묵을 우리는 숙소로 가서 방을 배정 받으니까 죽곡초등학교 친구하고 같이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식당으로 내려가서 밥을 먹고, 친구들을 소집해서 담력이 얼마나 높나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어떤 친구는 출발하자마자 바로 숙소로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참 허전하였습니다. 체험을 한 뒤, 우리는 방으로 돌아가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하동에 있는 청학동이란 곳으로 갔습니다. 청학동에 가니 옛날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나 알 수 있

었습니다. 우리는 삼성궁으로 가서 배달길을 걸어보았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돌틈에 돌이 있어서 그것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였습니다. 삼성궁을 체험한 뒤, 숙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점심을 먹은 후, 예절을 배웠습니다. 공수하는 법과 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옛날 서당에 다니는 아이들이 참 무서움에 떨면서 서당공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절공부가 끝난 후, 널뛰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참 잘 안되었습니다. 자꾸 떨어져서 안되고 볼 때는 잘 될 것 같지만, 할 때는 막상 잘 안되었습니다. 그다음엔 투호놀이를 하였습니다. 저는 2개를 넣었고, 아빠는 5개를 다 넣었습니다. 저는 투호놀이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투호는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놀이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엔 인절미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인절미 망치가 너무 무거워서 저는 잘 못 찍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들은 잘 찍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잘 찌울 수 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다음은, 활쏘기였습니다. 활쏘기를 할 때 보기에는 잘 될 것 같은데, 해보니까 활시위가 잘 안 당겨지고, 힘이 없이 날라 갔습니다. 힘없이 날라 가는 화살을 보니까, 옛날 장군들은 진짜 힘들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활쏘기를 하고, 장기자랑을 하였습니다. 장기자랑을 할 때 우리 5조는 숫자송과 가을길을 불렀습니다. 장기 자랑 후, 밥을 먹고, 다 체험발표회에 쓸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다 작성하고도, 몇 번을 읽고, 몇 번을 읽고, 하였습니다. 체험 발표회를 하니까 참 가슴이 긴장되었습니다. 제 차례가 가까워 질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체험 발표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서 씻고 잠을 잤습니다.

마지막날, 드디어, 오늘이 지리산 탐사가 끝나는군요. 아침에 밥을 먹자마자, 비가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저는 지리산 탐사의 막을 내리니까 날씨가 비가 왔나 봅니다. 우리는 비를 헤집고, 청학동을 떠나서 죽곡 하한에 있는, 하늘나리 마을에 갔습니다. 하늘나리마을에 가는 도중에 멀미를 할 것 같았습니다. 하늘나리마을에 도착해서 밀납초를 만들었습니다. 밀납초를 만들 때 꿀찌꺼기를 말려서 그걸 끓여서 밀납초를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꿀을 먹고 꿀 찌꺼기를 뺀어 내었습니다. 꿀이 질겼습니다. 밀납초를 끓여서 대나무에 붓기 전에 실에 끼워서 고정시킨 다음 끓인 밀납을 부었습니다. 점점점 굳더니 밀납초가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참 신기하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기다리던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상을 바랬는데, 못 받았지만 참 재미있는 탐사였습니다.

저는 이번 탐사를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해 주신 문화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만나 친하게 지내고, 친구가 된 것이 무엇보다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지리산 생태문화 탐사문

나형규(곡성 고달초등학교 4학년 나찬웅 아버지)

전화가 걸려왔다. 학교에 있어야 할 아들이었다.

“아빠 지리산 생태문화탐방 갈 수 있어요?” 하고 물었다

“너 가고 싶냐?”

“가고싶어요.”

“그럼, 가야지”

하고 대답했다.

요즘 아이들 교육문제라면 모두 발 벗고 나서는 세상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나도 흔쾌히 대답하지 않았나 싶다. 뜻깊고 의미 있는 탐방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설레는 마음과 흥분된 가슴으로 버스에 올라 2박3일간의 탐방이 시작되었다.

난 이번 탐사에서 첫째, 지리산 주변의 문화 탐사와 둘째 우리 아들의 생활 태도와 적응 능력, 학습 태도를 관찰 하자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참가 해복 싶었다.

먼저 문화탐사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직접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놀이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았다. 특히 청학동에서의 인절미 만들어 먹기가 인상 깊었는데 직접 떡매를 치는 모습이 힘들어 하면서도 귀엽고 애써 해보려는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 좋았다.

이러한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수 백 번 듣는 것 보다 효과면에서 월등하리라 생각된다.

나도 시골에서 유년기를 보냈지만 떡을 직접 만들어 보지도 못했고, 그저 부모님께서 해 주신 것만 먹어 보았는데 저도 직접 떡매를 쳐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요즘은 무엇이든지 다 사서 먹을 수 있는세상이 아닌가!

또한 활쏘기는 어떠한가!!

어릴 적에 활을 만들어 쏘아보기도 하고 전쟁놀이도 해보았지만 요즘아이들은 직접 만들어 보지는 못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직접 쏘아 보는 것만으로도 큰 경험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번엔 우리자녀를 관찰해 본 결과 집에서는 과연 우리 아들이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지? 단체생활에 잘 적응하는지?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지? 선생님 통제에 잘 따르는지? 등.....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가 부질없는 생각이었다고 결론을 지었다.

모두가 만족스러웠지만 단 한가지 아쉬운 점은 학습태도가 좀 산만하다는 것이었다.

집에서도 산만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역시나 집중하지 못하고 옆 친구와 이야기하고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하는데도 딴짓하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비쳐졌다. 따라서 집중력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아무튼 전체 일정 중 모두 매끄럽게 진행도 잘되고 설명도 잘 해 주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둘째 날 저녁에 아이들이 발표할 시간이 있었는데 발표문을 작성할 때 대부분 부모님들이 작성 해 주는 것 같았고 이것을 자녀들이 그냥 보고만 읽는 모습이 너무나 아쉬웠다.

물론 부모님이 옆에서 지도만 해 준 부모님도 있었겠지만 요즘 아이들 숙제는 부모님숙제가 된지 옛날 말이 아닌가?

이러한 탐사활동에서 만큼은 아이들이 직접체험한 일들을 자기가 스스로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곳인데 부모님이 느낀 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다행히 발표 후 반에는 아이들이 보지 않고 스스로 발표하는 모습이 참 좋았다..

이러한 것 들이 진정한 체험발표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체험기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너무 먼 거리는 좀 자제하고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화재에 대해 탐사가 이루어 졌으면 한다.

가령 우리지역 우리고장에 있는 문화 유적들을 탐사하고 연구하는 활동이 되었으면 한다.

대부분 여행을 가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스쳐지나가지만 이번 탐사와 같이 보고 듣고 의미를 알고 유래를 알고 여행을 하면 보다 즐거운 여행이 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탐방이 자녀와 함께 하게 되어 보다 뜻 깊은 탐방이 된 것 같다..

이 다음에도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이번엔 아들과 함께 했는데 답에는 딸과 함께 하고 싶고 이러한 탐방을 계획해주신 곡성문화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에 다녀와서

신수진(곡성 석곡초등학교 5학년 1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지리산 생태 문화체험 가는날!

아침에 날씨가 조금 쌀쌀했다. 그래서 두툼한 잠바를 입고 엄마와 함께 나서려고 짐을 꾸렸다. 제가 이 체험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선생님들과 저희 아빠의 도움입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이 체험에 올 수 있도록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8시까지 군민회관에 나와서 이 체험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출장에 다녀오신 아빠께서 늦게 들어오셨는데도 힘들다고 내색하시지 않고 웃으시며 곡성까지 태워다 주셨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과 아빠께서는 체험을 열심히 하고 오라고 보내준 것이니 열심히 체험해야지 하며 버스에 올라 탔습니다. 남원 사무장님께서 나오셔서 남계서원부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남계서원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서원이라고 합니다. 정여창 선생님께서 세우신 서원이?! 箭? 하는데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남계서원 앞에 큰 기둥 같기도 하고 문갈기도 한게 세워져 있었다. 나는 그게 궁금해서 “이건 이름이 뭐가요?”하고 물어보았는데 알고보니 그것은 ‘홍살문’ 이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하셨다. 모르는것을 알게됐다는 기쁨에 잘못하면 “심봤다”는 말까지 할뻔했다. 나는 항상 모르는 것을 알게되면 기분이 참 좋다. 그 즐거운기분을 버스에 싣고 달려간 곳은 ‘상림숲’ 이었다. 중림과 하림도 있었는데 그곳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없어졌다고 한다. “중림과 하림도 남아 있었다면 참 컸겠지?”하는 생각도 들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상림에 있는 나무들은 무려 1000년이나 됐다고 하는데 크기가 6만평이라고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아~! 1000년이라~ 나는 그것에 반도 못사는데 나무들은 참 좋겠다.”하는 생각도 잠시들었다. 낙엽이 떨어져있는 길을 걸으며 낭만이란것을 느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한연못에 도착했다. 연못에는 연꽃들이 참 많았다. 알고보니 이 연못에는 전세계에의 연꽃들이 다모여 있다고 했다. 그말을 듣고 난 후 나는 놀랄수 밖에 없었다. 전세계! 의 연꽃이 모여있는 연못사이의 징검다리를 엄마와 함께 걸으니 어떤 부녀, 부자도 부럽지 않았다. 참행복하고, 공기도 좋았다. 또 오랜만에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것 같다. ‘실상사’! 실상사는 우리나라 현재불교의 최초사찰 이라고 한다. 역시 최초사찰 답게 신기한 곳이 많았다. 문살도 무궁화 문양인데 정말 특이하고 예뻐다. “무궁화 문살이라니!” 처음보는거라서 카메라에 담아 두었다. 또 절안에는 부처님 불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2660’ 근의 철을 녹여 만든 불상이라고 하는데 손만쪽이 부러져 있어서 철을 녹여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나무로 만들어서 붙여놓은 것도 볼수 있었다. “아니~!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이거하나 못 만들까?” 정말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대단했다는 생각이 든다. 또 지리산들이 포개져 있었는데 그것이 실상사를

감싸고 있는 연꽃 같았다. 실상사를 가면 꼭 들려야 할 곳 바로 '전통재래식 화장실' 그런데 입구부터 냄새가 지독했다. 그곳에서는 그것을 발의 거름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에 다시한번 놀랐다. 평소에나는 환경을 훼손할뻔 한적이 많다. "아 정말 본받아야겠다. 환경을! 회손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자신을 반성하며 간 곳은 6시내고향에서 지었다는 '허브하우스'였다. 거기서는 참 향기가 코끝을 찔렀다. 또 정신이 맑아지는 듯한 기분도 들었다. 온김에 허브비누도 만 들고 기념품도 샀다. 그중에서도 '허브향기가 나는 샴프'가 제일 신기 했었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 남원 사무장님께서 판소리를 들려주셨다. 우리들은 기분이 좋아져서 판소리 중간중간에 '얼썬~', '좋~다' 이런 추임새를 넣었다. 또 저녁에는 화엄사에 갔는데 어두웠지만 마음에 여유를 가지며 엄마와 나는 시나브로 길을 걸으며 화엄사를 둘러보았다. 그때 행복해서 엄마께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도 해주었다. 너무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고 청학동 삼성궁에 도착! 나는 배달민족이라는게 우체부아저씨들의 조상인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보니 배달은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이었다. 그래서 배달민족인 것이다. 삼성궁은 옛날에 가족과 한번 와본적이 있는데 많이 바뀌었다. 옛날에 있던 우물도 없어졌고 삼성궁에서 입던 옷도 이제는 입지 않았다. 하지만 지리산을 둘러 싸고 있는 삼성궁의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안았다. "과연 성스러운 순례참배지야"라는 생각도 했다. 또 도인촌이라는 곳을 갔는데 도인촌은 청학동을 지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다. 거기서 청학동을 만든 할머니와 사진도 찍었다. 그리고나서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라는 예쁜말도 해드리고 왔다. 그리고 청학동에 와서 공수인사를 배웠다. 이 인사를 배우며 "다른 사람이나 부모님에게도 이 인사를 배웠으니 실천해야 겠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활쏘기와 투호놀이, 그리고 널뛰기는 처음해보는 거였는데 이놀이를 하며 "우리 조상님들도 나처럼 이런 놀이를 할 때 재미있었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인절미를 만들때는 엄마가 매질을 하는 모습이 정말 정성이 담긴 것같았다. 청학동에서 예절도 배우고 많은 체험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평소에는 엄마가 직장 때문에 학교에서 행사가 있으면 잘오시지 못해서 이런 체험같은게 있어도 혼자라서 자신감이 없어서 잘 하질 못했다. 하지만 오늘 만큼은 엄마와 함께하니 정말 행복한것 같다. 내년에도 기회가 생긴다면 또오고 싶다. 그리고 "엄마... 엄마와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나중에도 엄마와 함께 꼭 이런 여행가요! 사랑해요~!"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

이미정(곡성 석곡초등학교 5학년 1반 신수진 어머니)

날씨가 겨울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에 엄마와 같이 가야 하는데 엄마와 같이 갈수 있으면” 딸이 말하더군요 직장생활 때문에 학교에 행사가 있어도 한번을 가주지 못하였는데 요번 한번으로 마음이 풀리기를 바라며, 딸아리와 함께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들뜨기도 하며 처음으로 가족이 다같이 가는게 아니고, 엄마와 딸이 같이 갈수 있다는게 들뜨기도 하였다

아침 일찍 가방을 챙겨 곡성으로 가는길에 날씨도 초겨울 날씨답게 추웠다.

곡성에 도착! 많은 아이들과 엄마들이 하나 둘 모여 조를 나누고 차에 탑승 하였다 곡성을 빠져 나가 남원을 거쳐 남계서원도착 하였다

1.남계서원은 정여창 선생님을 기리기 위하여 창건하고 남계서원이라 칭하였는데 서원으로 서는 백운동서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지은 건물로 명종 21년에 사액서원이 되었다고 한다. 문화재 중에서도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국보와 보물등으로 구분이 되어있다.

① 유형문화재란 조상들이 남긴 유산으로써 삶의 지혜가 담겨있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이다. 우리가 고적답사를 가면 볼 수있는 성곽 옛무덤 불상이나 불탑 그리고 옛그림 도자기 고서적 등을 비롯한 유형의 것이었고,

② 무형문화재는 판소리, 탈춤과 같이 형체는 없지만 사람이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문화재들도 있다.

2. 함양 상림숲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숲이라고 한다. 1천년 넘는 세월을 지켜온 숲이라고 하며 3천평의 넓이에 2만여그루의 나무가 낙엽이 되어 늦가을 진한 향기가 너무 좋다.

3. 실상사에 도착! 다리를 건너자 절입구에 돌장승이 인상적이다. 실상사의 절은 산속이 아닌 들판에 있었다. 장승이 마을입구에 세워져 있는 것은 보통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돌로 만들어져 있어 신기했다. 재래식 화장실은 냄새가 많이 나는데 실상사 재래식 화장실은 냄새가 적게 났다. 나중에 가실 때 톱밥 한바가지 부어주고 가시라고 적혀있다. 그래서 이절에서는 이화장실이 명물이다. 명물이어서 꼭 들렀다가 가시라고 하나보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여기에 부처님의 또다른 살법이 들어있는 듯합니다.

4. 운봉 허브마을 에서는 허브비누 만드는 체험을 하였다.

5. 지리산 삼성궁 도착 삼성궁은 우리의 시조인 환인 환웅 단군을 모신 서당이며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며 전통무예를 익히는 것이고 수많은 돌탑들과 맷돌이 너무 정교하며 모양도 다양하고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훌륭했다.

청학동에서는 활쏘기 투호놀이 인절미 만들기 널뛰기 생각보다 직접 체험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다. 아이들도 모두 신기하다는 듯이 열심히 하나가 되어 체험에 임하고 이번 지리산 생태 문화 대탐사에서 많은걸 보고 듣고 체험하며 이번 기회로 인해 자연을 생각하며 실상사에서 재래식 화장실이 인상 깊었다. 우리가 수세식 화장실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는 하천과 강물을 오염시키는 중요한 원인중 하나이다. 재래식 화장실이 냄새난다고 불평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훈이 된 것 같다. 요즘 우리 자녀들을 보면 비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고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이번 지리산 대탐사에 많은 것을 보고 느꼈으면 합니다.



기행 소감문

김민희(곡성 중앙초등학교 4학년 3반)

나의 생각하나, 어제부터 고민이 생겼다. 엄마랑 같이 체험을 갈 것인지 아니면 학예회 준비를 위해 태권도에서 연습을 할 것인지 깊은 생각에 빠져 들었다. 선택은 내 마음이다. 엄마랑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기행을 떠날지 무척이나 궁금하고 설렘이었다.

아침 일찍 배낭에 준비를 마치고 모임 장소에 도착해 보니 벌써 많은 친구들이 와 있었다. 아는 친구도 있고 처음 본 친구들도 있었다.

점검을 하고 우리는 2호차에 탑승을 하여 체험을 떠났다.

우리차가 달리자 바람도 함께 기행을 시작했다.

울긁불긁 산과 들은 제 멋을 자랑하려고 꽃단장을 하고 있었다.

나의 생각들, 처음으로 우리가 도착한 곳은 남계서원, 서원에 들어가는 첫 문은 홍살문이다.

지붕에는 학이 많이 그려져 있었고, 뜻을 함께한다는 글귀가 있었는데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

여기는 실상사 1300년 된 철불이 있는 곳이다.

엄마는 그곳에서 문살을 보시고 감동하셨다. 이런 문양을 처음 보셨다고 하신다.

아직 까지도 건재하게 남아있는 모습이 자랑스럽고 무궁화 꽃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사진도 한 장 찍고 해우소를 체험하였다. 옛날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움을 볼 수 있었고, 지금 우리도 자연환경을 사랑하며 보호하자고 목청 높이 이야기 하고 있다.

나 또한 매일매일 엄마의 잔소리, 분리수거해라, 화장지는 조금만 쓰렴... 꺾가에 맴돈다.

나의 생각셋, 꼬불꼬불 산 속으로 깊은 곳으로 무얼 찾는 걸까?

우리가 도착한 곳은 하늘나라마을이다.

그곳에서 밀납초를 만들었다. 벌꿀을 씹어서 찌꺼기가 남으면 그것을 하루종일 중탕에서 끓여 남은 것이 밀납초를 만드는데 쓰이는 성분이라고 말씀하셨다.

느낌이 조금 이상했지만 천연 초라고 하셨다.

새롭고 신비로워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생겼다.

정성이 가득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내려 왔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헤어져야 한다.

조금씩 친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아쉽다.

2박3일 동안 나는 엄마와 함께 행복했다.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기행 편지글

성경덕(곡성 중앙초등학교 4학년 3반 김민희 어머니)

나의 님은 꿀 딸에게.... 보렴!

사랑한다는 말로는 표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너에게 글로 엄마의 마음을 전하려고 한단다.

며칠전 너의 축하메세지 고맙다. “엄미 생신 추카추카...

너로 인해서 나의 얼굴에 웃음이 만발하였단다.

생일 빵이라고 뒷 덩미에 차가운 손을 넣었을때 조금 화가 났지만 너가 엄마에게 다가오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한단다.

자기 중심적인 둘째딸,

하지만 엄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지 위로는 언니가 있고 밑으로는 동생이 둘이 있는데 그래도 가운데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너에게 미안하구나!

너의 말 한마디에 엄마의 피곤함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단다.

조금 더 너에게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

바쁘다, 바빠

마음은 이미 저 멀리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행동이 더디는지...

며칠 전부터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다.

싱숭생숭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밤새 들뜬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부터 부산을 떠나며 배낭을 메고 출발지에 도착했다.

서로서로 인사를 나누고 각조로 편성되어 체험길에 올랐다.

저 멀리 알록달록 고운 색동옷을 입은 산과들은 나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주었다.

어쩔 저렇게 예쁜 빛깔을 가질수 있을까?

외마디 탄성이 나의 감동을 표현케 했다.

꼬불꼬불 험리재를 돌아 아름다운 산속 깊은 곳 숨이 턱에 까지 차 올라 심장소리는 온산을 뒤 흔들었다.

잠시후 도착한 곳은 삼성궁

목화(목판)그림, (용)두마리.

어쩔 저리도 아름다울수 있을까?

목판에 새겨져 있는 용맹찬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환상적이다.”라는 말은 이럴때 쓰는 것이다 라고 느꼈다.

용 두 마리가 승천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았다.
수 많은 돌과 그곳에 어울려진 맷돌, 디딤돌의 징검다리는 어릴적 개울가를 생각나게 했다.
궁을 둘러보면서 인간의 재능은 무한함을 또 다시금 느끼게 되었고, 셀 수 없는 돌들은 거대한 작품을 완성시켰다.
작은 돌들이지만 그곳에서 고귀함을 지닌채 한껏 멋을 자랑할 것이다.
정들면 이별이라고 짧으면 짧고 길면 긴-
2박3일의 여정이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다.
아쉽다. 그리고 행복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 자기 자신이 속한 그곳에서 최선을 다 할거 라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울리는 판소리의 멋과 추임새를 알려주신 남원 사무국장님과 14년만의 외출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모든 이에게 감사드립니다.



문화 현장을 탐방하고

이광숙(곡성 중앙초등학교 4학년 2반 오다해 어머니)

결혼생활 15년차 평범한 가정주부로 직장여성으로 또 한 남자의 여인으로 살아오면서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여유 있는 여행도 못해 항상 마음에 짐을 지고 있었는데 금번 곡성문화원에서 실시한 문화탐방에 참여하여 귀여운 딸아이와 함께한 2박 3일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곡성에서 태어나고 곡성에서 성장하여 고향을 벗어난 생활이 일천한 순수 시골 출신으로 시골생활은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랑하곤 하였는데, 막상 자녀와 함께 문화탐방을 체험하고 보니 그동안 우물안 개구리였음이 금방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딸아이가 엄마 저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은 무슨 뜻이야 하고 질문을 할때면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알려주실거야 하면서 얼버무렸던 점은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녀와 함께 실상사· 남계서원 등 유적을 감상하면서 역사공부와 함께 스님이 인분을 활용하여 퇴비를 생산하여 저공해 채소를 가꾸는 모습에서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게 되었고, 청학동 등 옛 모습을 대할때면 자연을 이용한 선인들의 현명한 생활모습과 현실이 교차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전북 남원시 운봉읍 허브마을의 비누 만들기· 전남 곡성군 하늘나리 마을의 밀랍초 만들기· 경남 하동군 청학동의 떡만들기는 평소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명절 등 기쁜날에 먹는 음식을 만드는 곳으로서 언젠가는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하는 숙제였는데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 모처럼 모녀가 활짝 웃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분위기상 모녀의 진솔한 이야기가 어려웠는데 집을 떠나서인지 딸아이도 저도 평소에 하지 못하였던 대화상자가 보따리를 풀자마자 계속되어 새벽이 되어서야 끝났던 정말로 시간이 아쉬웠던 점은 빼놓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끝으로 유익하고 즐거운 문화탐방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신 곡성문화원장님및 간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러한 행사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행사로서 곡성군민의 문화의식과 역사인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면 서 줄이고자 합니다.

(체험 기행문) 아빠와 함께 지리산을...

조화진(곡성 중앙초등학교 3학년 1반)

우리 아빠는 곡성문화원 사무국장 이고, 지리산 생태체험 인솔 자 이기도 하시다. 그래서 나는 작년에도 지리산 생태체험에 덤(?) 으로 따라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도 우리 반에 갈 친구가 없어, 뿔혀서 가는 것이기도 하다.

작년에 내가 첫째 날 실상사에서 물에 빠질 뻔 한 사건이 있었다. 그 때는 박 병 준 오빠와 지금 우리 학교 전교 회장인 빙 수 현 오빠가 말다툼을 하다가 내가 밀려가서 그 옆에 흐르고 있는 시내에 빠질 뻔 했고, 그 때 우리 5조 조장님이 잡아서 간신히 살았다.

그런데 아빠는 아빠가 구해 주었다고 순 빵을 치셨다. 그리고는 내가 그런 일을 당해서 다행 이라고 한마디 덧붙이셨다. 하긴.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 아빠가 책임 지셔야 되니까...

첫 번째 코스는 남계서원 이었다. 그 곳에서는 나는 계속 설명도 안 적고, 옆에 있는 연못가에서 놀기만 했었다.

두 번째 코스는 상림.

상림을 지은 목적은 보기만 즐거울 뿐 아니라 보수공사를 목적으로 지은 것 이다. 그 곳에서는 물이 굉장히 맑아서 송사리가 떼 지어 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 '이집트에서 보물찾기' 라는 책에서 본 '파 피루스' 도 살고 있었다. 드디어 실상사로 갔다. 작년에 와서는 진짜 재미없었는데, 올해 또 보니 장승들도 반가웠다. 아빠가 꼭 거기에 있는 화장실에 가보라고 일행에게 말하고, 화장실에 대해서 설명했다.

화장실도, 장승도 너무너무 반가운 실상사 이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춘향 허브 마을에서의 비누 만들기!! 비누는 이미 심청축제에서 만들어 보았지만 여기에서는 완 · 전 · 체 · 험!!

심청축제에서는 완전 선생님이 다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직접 녹이고, 붓고, 다 했다.

진짜 재미있었다.

이제 첫째 날의 마지막코스!! 화엄사!!

화엄사는 구경만 하고, 아빠 핸드폰 빼앗아서 전시관 사진만 박박 찍어대고, 바로 잠자러 갔다.

우리 일행의 잠은 작년과 다르게 황등파크 호텔에서 잤다.

호텔이라고 다 좋은 것 아닌 거 같다.

밥 먹고 담력테스트를 했다. 우리 조 나 찬 응 오빠랑 몇몇 언니오빠들과 암흑의 도로 테스트를 했다. 불

빛 한 점 없는 말 그대로 암흑의 도로를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 이었다.
 나는 어둠 있는데 까지도 못 가고, 바로 돌아왔다.
 말 그대로 빵 지,(빵 짐)인 것이다.
 아마 끝까지 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이다.
 나는 늦잠이 아닌 늦잠을 자서 아침밥을 안 먹었다. 그리고 바로 버스를 타고 청학동 삼성궁에 갔다.
 뭐 작년과 또~옥 같이 생활 했다.
 다음 날 드디어 하늘나리 마을 출발!!ㅇ*ㅇ!! ^^;
 밀랍 양초를 만들기 전에 밀랍의 주 원료인 벌집을 시식하고 그 남은 찌꺼기가 밀랍을 만드는 것 이다.
 드디어 우승 모듬 발표 시간이 돌아왔다!!
 하지만 우리조가 아니고 4조에 상품이 돌아갔다.
 그런데 아빠는 4조가 진짜 모범적이었다고 했는데
 우리 조가 경고도 안 받았는데, 4조가 잘했다고 하니 진짜 나빴다.



